

차례

公州의 어제와 오늘 2

웅진칼럼 _ 3

‘만남’에 관하여 _ 이은무

특별기고 _ 5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⑤ / 백원철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 _ 8

새마을운동중앙회 공주시지회

의회를 찾아서② _ 10

- 유구병 공주시의회 부의장

- 고광철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특집 _ 14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④ / 장길수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_ 18

국선도/가야금/가곡

우리 고장의 옛 자취를 찾아서 _ 24

- 향토사료 -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① / 이일주

-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 정안면 윤궁리

공주의 인물 _ 35

고균 김옥균 선생

내고장 소식 _ 38

- 시정소식

- 내고장 소식

- 출향인사 · 고장인사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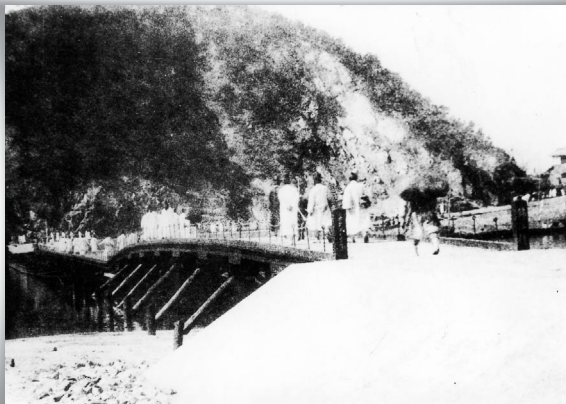
미담 _ 46

예술의 향기 _ 50

문화원 소식 _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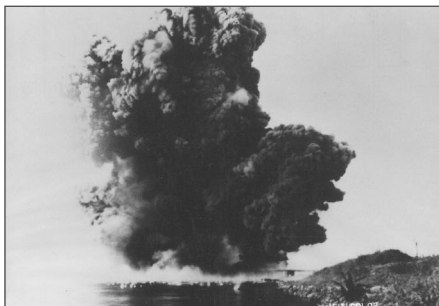


公州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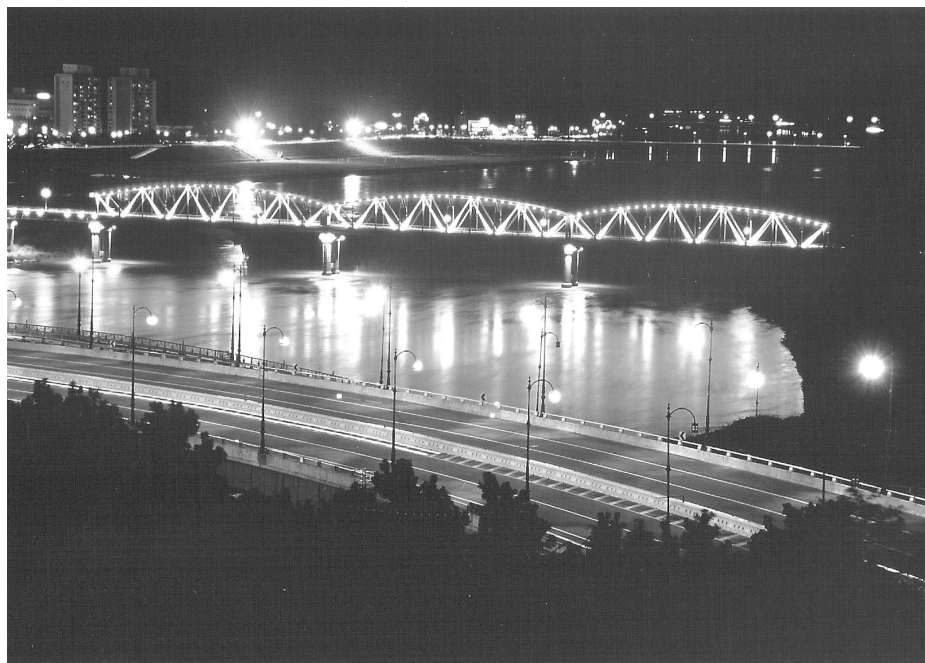
1920년 금강 배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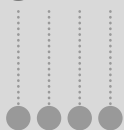
지금의 신관쪽에서 배다리를 건너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들이하는 주민들이 인상적이다.('금강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6.25 당시 북한이 한강 이남까지 침범하자 북한을 저지할 일환책으로 금강교를 폭파했다.

현재의 금강대교
(조명 설치로 야경이 매우 화려하다.)





이 은 무

공주 출신, 시인
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회원
현) 잉글리쉬무무 중등 제1
학습관 원장

‘만남’에 관하여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오백 번의 만남이 있어야 이승에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라니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일요일, 젊은 가수 유열은 소식이 끊긴지 오래되어 만날 길 없는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초등학교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여느 출연자들과 다르게 특수한 환경(고아원)에서 자랐던 척추장애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의(義)로움이 강했던 그 때 그 친구가 어디에선가 같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돌보며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싶었습니다. 찾는 자로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천사원’에서 자랄 때 많은 동생들을 돌봐주었던 어엿함으로 미루어 확신하는 듯 만면(滿面)에 웃음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픈 영화 속에도 기쁨이 있듯이 이제는 한 가정을 꾸려 어린 날의 지독한 고독을 떨구어 버렸겠지…… 하는 젊은 가수의 표정 위에 나는 잠시 후면 얼싸안고 호탕하게 웃으며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까지 더 얹어가며 스스로를 텔레비전 앞에 좌정 시켰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언뜻언뜻 비춰지는 반 지하 열악한 주거환경!

“00야, 00형, 00형!”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다시 불러 나온 친구, 어릴 적보다 훨씬 심한 장애를 등에 지고 잣대만한 단장예다 전신을 의지한 채 비척비척 쓰러질 듯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만남 앞에 사회자도 방청객도 시청자의 한 사람도 말의 연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찾은 친구가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야 포옹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몇 천 도의

용광로 속에서 합금되어 나오는 뜨거운 사랑의 몸짓을 보았습니다. 귀공자처럼 자랐다는 그는 친구의 뒤로 가서 휠체어를 밀며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의 모습보다 몇 십 배의 감동을 주면서…….

나도 부모님과 만남을 시작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동기(同氣)간과 법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의 만남이 있지요. 자라면서는 지금은 추억만 반짝이며 굴리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비롯하여 눈썹부터 꼼꼼히 아니 무럭무럭 늙어가고 있을 여학교 친구들이며 형식과 치례를 멀리 하시며 정갈하게 살아가시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이렇게라도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며 서는 붓글씨를 쓰다 만난 한 사모님이 내 삶을 순하게 순화시켜 주는 역할을 전담하셨고, 본인이 힘이 들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언제나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밝은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극 정성스런 한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강철보다 강한 여성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구의 주인공 자리를 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았지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만난 주변 분들이 올바른 획을 굿게 도와주어 한 사람으로 여물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이치 어느 하나도 도그마(dogma)적인 것은 없으니 모든 만남이 복되고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릇된 만남으로 인한 상처는 부챗살처럼 펼쳐지 말고 접어 둡시다. 그랬다가 상처받은 마음의 병이 가라앉은 훗날 펼쳐보면 그 당시 빈곤했던 마음도 은박지처럼 빛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전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成人)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쇠갈고리로 꿰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어낸 사나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하였다는군요. 누구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때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고 그래도 힘이 들면 ‘나만은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다면 내적인 성장을 가져와 성인(聖人)이 되지 않을까요?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타(利他)적인 생각을 품어야 성공적인 삶이라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노력하며 살아야 겠습니다.

가장 가까운데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게 패이기 때문일까요. 남편과 자식에게 까지 지독히 웅졸하고 웅색한 사람이 어찌다 이런 글을 쓰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며 어떤 만남에서 감동을 받았던 그날처럼 일요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지난 한 주간 만난 이들과의 관계를 더듬어보다 자세를 낮추고 올려다본 하늘에는 시류를 타지 못한 구름 한 점이 다른 무리에 합세하기 전 살풀이춤을 추고 있네요.

자, 다시 내일 아침이 허락되어 진다면 왼발을 오른발 앞에, 그리고 오른발 앞에 왼발을 내디디면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내 작은 일터로 향하렵니다.

금강(錦江)을 건너며



백원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공의 문집 「仙源遺稿」에는 금강과 공산성을 두고 지은 시 5편이 보인다. 그 중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다음의 시이다.

강남 강북에 풀은 우거져 있고
눈 가득한 봄 경치에 나그네 마음 산란하네
근심스럽게 배에 기대어 옛 자취 둘러보니
청산은 말이 없고 새들만 부질없이 지저귀네

江南江北草萋萋 滿目韶光客意迷
愁倚木蘭尋故跡 青山無語鳥空啼
〈仙源遺稿上, 八「錦江」〉

위 시는 봄철에 금강을 건너며 지은 시인데도, 강 주변 경관의 싱그러움이 배제되고, 지은이의 흥겨움도 담겨 있지 않다. 금강을 노래한 많은 여느 시와는 달리 그 정조(情調)가 어둡기만 한 것은 왜일까?

추정컨데, 아마도 위 시는 임진왜란의 국난 기간에 무거운 책무를 떠맡은 공이 분망중에 읊은 것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의 신도비(神道碑) 글을 통해서 공의 행적을 살펴보면, 공은 권율(權慄)도원수의 종사관이 되어 호남과

영남의 군중을 왕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又以都元帥權慄接伴使金晬張雲翼從事官往來湖嶺軍中). 권공이 도원수의 직위에 오른 때는 행주대첩을 거둔 1593년이고, 그 후 해직되었다가 다시 충청도 순찰사에 이어 도원수가 된 것은 1596년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김 공은 임란 중 종사관의 책무를 맡으며 공주지역을 왕래하였고, 그 시기는 1593년(선조 26년)이거나 1596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시는 위의 두 시기 중 어느 한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뒤, 다시 금강을 건너며 지은 시 두 수가 있는 바, 다음과 같다.

피향당 안에서 오래전 머물렀었는데
옛 자취 아련히 한 꿈속의 일인 듯
함께 놀던 정든 이들 이미 세상 떠나고
늙은 이 몸만 다시 지나니 눈물이 흐르네

금강정 물가에 석양 빛 비치는데
산천은 그대로나 겪어온 세월은 달라
29년 지나 다시 이곳에 이르렀으니
누군들 알았으리오, 외로운 신세로 다시 올
것을!



披香堂裏昔留連 陳跡依依一夢邊
屈指同遊零落盡 白頭重過淚潸然

錦江亭畔倚斜暉 物色依然往事非
二十久年重到此 誰知孤鶴是令威[※]
〈仙源遺稿, 上, 二十八, 「過錦江憶舊遊有感二首」〉

※ 令威 : 丁令威를 가리킨다. 한(漢) 요동
인으로서 신선도를 배우고자 집을 떠났
으며, 천년 만에 학이 되어 다시 고향에
돌아와 공중을 배회하며 “성곽은 옛 그
대로인데 사람들은 아니로다” 하고서
하늘 위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위 시는, 김 공이 29년이 지나 다시 공
주를 찾아 금강을 건너면서 지었음을 밝
히고 있는 바, 그 경위가 궁금하다. 역시
비문(碑文)속에서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괄의 난(1626년, 인조
2)때 공주에 오게 된 것을 말한 듯 하다.
당시 국왕 인조의 공주 피난에 앞서, 김
공은 64세의 노령인데도 검찰사(檢察使)
의 직무를 띠고 앞서 도착하여 조정의
피난에 따른 제반 준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明年甲子 . . .
李适叛 上幸公州 公以檢察使先行 供頓無
乏 募兵輸粟 以佐軍興 賊平扈駕還都)

이괄의 난이 있는 갑자년은 1620년이
다. 따라서 29년을 거슬러 해아려보면
김 공이 처음 공주를 찾아 앞서의 시
「금강」을 짓게 된 것은 권율 공이 재차
도원수의 직위에 오른 때(1596년)의 종
사관 시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 공은 또 공산성을 두고도 두 수의
시를 남겼는바, 다음과 같다.

웅진 도독부는 옛 적 큰 변방 고을로
동남지역 움켜잡고 통제하던 요지라네
산 형세는 북극성을 받들 듯 에워쌌고
강물을 흘러 서해의 관문에 다다른다네
뽕이며 삼이며 곳곳마다 보기 좋게 자라고
연기오른 집집마다 넉넉한 살림이네
지금은 태평성대라 병기들 내려놓았는데
까마귀 떼지어 나는 성곽에 황혼이 깊어가네

熊津督府古雄藩 控扼東南節制尊
山勢拱趨天北極 江流通接海西門
桑麻處處田園好 烟火家家物色繁
聖代卽今刀斗靜 亂鴉殘堞自黃昏
〈仙源遺稿, 下, 二十四, 「公州山城」〉

위 시는 나라의 전란이 모두 끝나고
평정을 찾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
다. 공주가 갖는 지형적 위상과 자연 경
관에 대하여 비로소 지은이의 섬세한 시
선이 닿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위 시와 더불어 다음에 드는 작품도 모
두 노년에 접어들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청산은 겹겹하고 강물은 말없이 흐르는데
해질녘 높은 누대 홀로 한가로이 오르네
낙엽지는 집집마다 가을빛이 깊어가는데
푸른 구름 저 멀리 새들도 저물어 돌아오네
위태로운 시절에는 품은 생각 펼치지 못하고
나그네길 부질없이 거울 속 늙은 얼굴 재촉



했네

이제는 술동이에 빠져 모름지기 흠뻑 취하
리니

술 깬 뒤라도 검버섯 번진 얼굴 대하지 않
으리라

靑山簇簇水潺潺 落日高臺倦獨攀
黃葉萬家秋色老 碧雲千里暮禽還
時危未試胸中策 客路空催鏡裏顏
且向樽前須酩酊 莫教醒對菊花斑

〈仙源先生續稿, 九,
「九日登公山城次薛荔齋韻」〉

한가롭게 공산성에 오른 김 공은 내
려다 보이는 만추의 주변 경관을 먼저
옴고, 이어 늦가을 계절의 스산한 정취
에 감발되어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
다. 일찍이 30대 젊은 시절 종사관으로
서 왜란 중에 호남과 영남의 병영을 왕

래하며 고통과 고뇌 속에 분명한 세월을
보냈던 자신이, 어느 덧 이제 늙었음을
깨닫고서 그에 따른 울적한 감회를 읊은
시라고 볼 수 있겠다.

공의 字는 경택(景擇)이며 호는 선원
(仙源)이다. 30세에 증광문과에 급제, 임
진왜란 중에 체찰사 정철과 도원수 권율
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고, 인조반정
후 예조·이조 판서를 지냈다. 이괄의
난에는 국왕(인조)의 공주 피난시 선후
업무처리에 공을 세웠고, 정묘호란 시에
는 유도대장(留都大將)을 맡았다. 1636
년 병자호란에 노구임에도 왕족을 시종
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자 화약을 피워 자결하였다. 조정
에서는 그의 충절을 기려 문충(文忠)의
시호를 내렸다. 시조에도 뛰어난 오류가
5편, 자손 훈계가 9편을 남겼다.

지금의 금강 전경





2007년도부터 공주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봉사단체를 찾아, 그들이 하고있는 일을 소개하고 널리 알려져 독자들에게도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공주시지회”를 찾았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공주시지회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 이웃사랑 운동



방재천 공주시회장

먼저 새마을 운동을 정리해보면, 잘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나아가 우리 모든 국민이 잘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 봉사정신을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뭄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 것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 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잘사는 마을로 바뀌리라고 확신한다.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제창하였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초가집 없애기, 담장 바꾸기, 마을 안길 넓히고 포장하기, 다리 놓기, 농로 넓히기, 공동빨래터 설치 등의 사업을 주로 하였고 1980년대에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일시적인 정체는 있었지만 국민운동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1980년 12월 1일 현재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은 민주화, 개방화의 흐름에 따라 이기적인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모습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 이웃사랑 운동에 중점을 두고, 1997년 IMF사태를 전후하여 경제 살리기 국민 저축운동,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으며, 1998년도 이후에는 공동체 사회 만들기를 이념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 추진을 선언하여 현재까지 민간 자율운동으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공주시지회는 방재천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11000여명의 회원들이 공주시와 공주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주기, 폐 자원 모으기, 소하천 살리기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 무연분묘 별초해주기, 경노 잔치, 꽃동산 가꾸기, 시민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스승과 제자 만남의 광장, 어려운 학생 장학금 전달, 불우 가정 쌀 나누어주기, 방범활동 전개, 공동 모금회 성금내기,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하기 캠페인 등 많은 일들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점 사업을 든다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밑반찬 만들어주기, 소하천 살리기를 꾸준히 진행하므로서 공주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더해주는 단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봉사활동을 통하여 큰 보람 갖기를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글 | 김춘원 명예기자



전통혼례식



수해복구 지원(경기 여주)



백제큰길 잡초제거



사랑의 김장담그기

「공주문화」는 공주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윤구병 공주시의회 부의장과 고광철 의원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균형 위한 가교역할하겠다

윤구병 공주시의회 부의장



윤구병 부의장은 지난 5·31 선거에서 중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또 7월에 제 5대 전반기 공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해 의장을 보좌하는 한편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부응해 가고 있다.

“제4대 의회 평의원으로서 체험하고 활동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타지역 선진 시설 벤치마킹, 의정연수 개최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윤 부의장은 “제5대 의회가 출범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와 시외터미널 이전 등 지역현안이 해결되지 못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각종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 시민불편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등이 남는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자성도 곁들였다. 2006년도 시정 질문에서도 ‘5톤미만 건축산업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방안’과 ‘동아마라톤 개최

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 굵직한 공주시 현안문제인 질문을 통해 “동아마라톤대회와 관련해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불거졌다”면서 “당초에 마라톤대회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으나 지역상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해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제제에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라며 집행부를 강도있게 힐책했다.

앞으로 공주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우리 시의원 모두는 행정도시 주변지역 문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대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힘과 역량을 한데 모으자”며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희망의 공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시민의 신뢰받는 의회, △기관단체와의 협력보완, △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과 협력활동 강화” 등 의지를 표명했다.



윤 부의장은 시민들에게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윤구병 부의장은 △이인면 체육회장 △보성건설(주) 대표이사 △탄천중학교 20회 동창회회장(현)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현)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원(현)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환경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초심(初心)을 잊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

고광철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공주시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소망한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공주대 문제, 행정도시 주변지역 문제, 둔치공원의 체육공원화사업 등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 특히 새로운 시책사업의 반영·정착이 가능토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5대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의 의정활동 다짐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재임성에 성공한 고 위원장은 그만큼 민의(民意)를 잘 꿰뚫어 시정활동을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시정 질문에서도 고광철 의원장은 ‘금강 물막이공사(라버댐)와 금강 돌보 사업의 이중 공사의 문제점’, ‘둔치공원 정비계획과 백제 큰다리에서 쌍신동에 이르는 하천부지를 둔치공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등 공주시가 직면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집행부를 압박했다.

업무보고회에서 고광철 시의회 의원은 “금강 물막이공사(라버댐)를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역에 한하는데 이중공사가 아니냐”라 묻고 “돌보의 위치로 보아 돌보라기보다 거의 물막이 공사인데 이것은 이중투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물막이공사(라버댐)는 우리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꼭 이뤄져야 되는데 6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하상보 호공 공사와 물막이공사가 같은 목적으로 이중투자가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커다란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연기군은 특목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주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석장리 박물관 운영실태와 대형버스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박물관에서 나가는 도로를 확보할 용의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시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등 굵직한 현안들을 캐 물었다. 그는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장장은 제4대 공주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공주시 산림조합 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공주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공주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BBS(청소년 선도위원회)이사(현) 등을 맡고 있다.

ㅣ 신용희 명예기자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4)

장 길 수

—봉황중학교 교장
—공주향토문화연구회원



풍수와 땅이름(3)

풍수 비보(裨補)와 땅이름

풍수에서 말하는 길지는 사신사(四神砂)인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이 뻗어나게 아름답고, 장풍과 득수에 의해 강력한 생기를 이루고 있는 곳을 말하며 흔히 명당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지표상에는 풍수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명당(明堂)은 드물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명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미비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돌을 쌓아 언덕을 만들기도 하고, 숲을 조성하여 명당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기운을 북돋운다. 이와 같이 명당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모자람을 채워주는 방법을 비보(裨補)라 한다.

정안면 보물리의 비보림(裨補林)

정안면 보물리는 공주시 백제큰다리

에서 23번 국도(공주~천안간)를 따라 약 13km 북쪽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국도변에서 동쪽으로 정안천을 건너면 바로 산기슭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 앞쪽(마을의 서쪽) 들판 한가운데에 작은 소나무 숲이 있다. 이 소나무 숲이 마을 숲이다.

마을 숲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비교적 많이 있었다. 마을 숲은 마을의 풍치와 바람막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숭배의 대상 또는 비보물로 풍수에서 좋은 땅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물리에 있는 소나무숲도 대표적인 비보림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보물리에는 복호혈(伏虎穴)이라는 명당이 있다고 한다. 복호혈이란 호랑이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땅에 엎드려있는 형국을 말한다. 호랑이혈 앞에는 개나 사슴과 같은 바위나 작은 산이 있어야 사람이나 가축에 해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러한 사격(砂格)이 없다. 들판 어디를 찾아보아도 호랑이 먹이가 될만한 것이 없으므로 무엇인가 비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

〈사진1〉 보물리 마을과 비보림



서 풍수지리학가의 이야기에 따라 호랑이의 먹이에 해당하는 개(犬) 모양의 나무숲을 들판 한가운데에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비보의 방법에 따라 실제적으로 산이나 숲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지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다.

1. 봉황(鳳凰)과 땅이름

봉황새는 성인(聖人)의 탄생에 맞추어 세상에 나타난다는 성스러운 전설의 새로 수컷은 봉(鳳), 암컷은 황(凰)이라고 한다. 봉황은 오동나무에 살면서 예천(醴川 : 甘泉)의 물을 마시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한다. 그리고 오색의 깃털, 5음(音)의 묘음(妙音)을 내는 영조(靈鳥)로서 못새의 왕으로, 더 나아가 천자(天子) 또는 왕권을 상징하기도 한다.

풍수에서도 봉황은 학, 거북 등과 더불어 그 형상을 길지로서 소중히 다루고 있다. 봉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땅이름에서 풍수 비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전국 도처에 봉황산을 비롯하여 봉황동·봉황리·봉황천·비봉면 등 봉황과 관련된 땅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봉황산(鳳凰山 : 공주시)

봉황산은 공주시 봉황동~반죽동~교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사대부중고 뒷산이다.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며 봉우리가 수려한 편이다.

봉황산 동쪽 기슭은 명당자리로 1707년 충청감영이 자리하였으며, 1896년는 충청남도청으로 바뀌어 1932년 대전으로 이전하기까지 도청청사가 있었다.

도청이 이전한 후 1933년에 도청 자리에 공주농림학교(현재의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사진 2〉 조선시대의 충청감영 정문
출처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1978, 서문당)



〈사진 3〉 일제시대의 충남도청
출처 : 충청남도발전사(1932, 호남일보사)

학교)가 개교하였고, 1934년에 공주여고가 이곳으로 이전하여 몇 년간 교육하였다. 이 터는 공주사범학교에서 개교한 공주사범대학이 1949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여 공주를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한 유서 깊은 곳이다.

그 후 공주사대부중(1953), 공주사대부고(1956)가 이곳에서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공주사대부중고가 전국적인 명문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주의 뜻 깊은 장소이다.

봉황산은 그 기슭 언저리에 봉황이란 이름을 많이 낳았다. 이 산기슭의 동남쪽 일원이 봉황동(조선시대에는 鳳凰山里라 불리었음)이고, 그 곳에 봉황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외에도 봉황이란 명칭이 봉황중학교에, 봉황의 문양이 쌍봉(雙鳳)의 형태로 공주고 모표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제민천에는 봉산교(鳳山橋)란 다리도 있다.

뿐만 아니라 봉황과 관련된 땅이름을 여러 곳에 만들어 냈다.

• 봉명리(鳳鳴里) : 계룡면 • 봉곡(鳳谷) : 계룡면 • 봉갑리(鳳甲里) : 신평면(鳳岩里 + 甲坡里) • 봉현리(鳳峴里) : 우성면(鳳鳴里 + 수현리) • 용봉리(龍鳳里) : 우성면(龍伸里 + 鳳村里) 등

▶ 반죽동(斑竹洞 : 공주시)

봉황산 동쪽 기슭에서 제민천까지의 지역을 반죽동이라 한다. 공주를 처음 찾는 사람은 물론 공주 사람들도 그 땅이름을 이상하게 여긴다. 왜 하필 반



〈사진 4〉 1960년대의 공주사범대학
출처 :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25년사(2006)



〈사진 5〉 현재의 봉황산과 공주사대부중고

죽동일까? 대체 반죽이란 무슨 뜻일까? 반죽(斑竹)이란 대나무의 일종으로 줄기에 검정색의 반점(斑點)이 있으며, 60여년 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다. 반점(斑點)이 있기에 반죽이라 부르고 있다. 바로 그 반죽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상서로운 새가 봉황(鳳凰)새이다. 물론 반죽동이란 대나무가 많아 그렇게 땅이름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봉황과 더불어 짝을 이루는 풍수지명이다.

봉황산을 더욱 봉황답게 하고, 봉황이 오래 오래 머물게 하려면 봉황의 먹이가 되는 대나무가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봉황산 바로 아래에 대나무밭이라는 지명으로 보충해 준 것이 반죽동이다. 따라서 반죽동(斑竹洞)이라는

땅이름은 풍수 비보(裨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오곡동(梧谷洞 : 공주시)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갓더니 ~’라는 노래가 있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앓지 않는다’는 옛말을 인용하여 가요화한 말이다. 이는 오동나무와 봉황과의 관계가 깊음을 나타낸 말이다. 따라서 봉황이란 지명이 있는 곳에 오동나무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봉황산이 있는 공주도 오동나무와 관련된 땅이름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오곡동(梧谷洞)인데 공주~이인 간 도로 중에 우금고개 넘어 공주국립정신병원이 있는 동네이다. 이는 봉황이 멀리 날아가지 못하도록 봉황산 가까이에 오동나무골이라는 땅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봉황산의 이름에 따라 반죽동이나 오곡동 등의 땅이름을 지은 것은 풍수 비보(裨補)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풍수 염승(厭勝)과 땅이름

풍수의 미비한 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보 이외에 염승의 방법이 있다. 염승(厭勝)이란 풍수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눌러서 제압하려는 의미의 풍수 용어이다. 염승적 풍수효과를 얻기 위한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불길한

기운이 마을에 미치지 못하도록 불길한 요소가 있는 방향에 숲(염승림)을 조성하여 그 기운을 차단하기도 하고, 쇠말뚝을 박아 역적의 기를 누른대거나, 풍수상 흉한 기를 인위적인 조작으로 눌러 이기는 방법 등이 있다.

▶ 등운암(騰雲庵)과 압정사(壓鄭寺)

등운암은 갑사 남쪽(신원사 북쪽) 연천봉(739m) 정상부근에 있는 암자이다. 신라 문무왕 5년(665)에 등운대사(騰雲大師)가 창건하였다는 유서 깊은 암자이다.

등운암을 한때는 압정사(壓鄭寺)라 부른 적이 있다. 이성계가 등운암을 크게 중건하면서 절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다. 절 이름인 압정(壓鄭)이란 정씨를 누른다는 의미이며, 정씨란 정감록(鄭鑑錄)에서 말하는 정도령이다.

정감록의 내용은 조선 이후의 흥망대세(興亡大勢)에 대한 예언이다. 그 예언 중에 이씨의 한양(漢陽) 도읍 다음에는 정씨의 계룡산(鷄龍山) 도읍 시대가 된다는 내용도 있다. 즉 지금까지 이 땅의 주인이 왕씨(개성)와 이씨(한양)였다면 앞으로는 정씨(계룡산)와 조씨(가야산)가 예정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계는 정씨의 득세를 누르고 등운암을 중창하면서 압정사라고 개칭한 것이다. 이는 고려 시대에 이씨의 득세를 막으려고 한양에 오얏나무를 심은 후에 다 자라기 전에 다시 베어냈다는 일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민족 고유의 정통심신 단련법

국 선 도



Ⅰ 국선도의 유래

국선도의 역사는 아주 오래입니다. 수련법이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국선도의 스승님들께서 밝히시기로는 그 역사가 무려 9천 7백여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옛 기록들에 따르면 중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삼황(三皇) 중 한 사람인 황제(黃帝)가 「청구」 땅 공동산에서 「자부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구」는 우리 겨레가 세운 나라였고 자부선인은 청구국의 유명한 큰 스승이었습니다. 황제가 와서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아득한 옛날의 우리 나라엔 바른 도(道)가 널리 펼쳐졌습니다.

한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차츰 도(道)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참된 도인들은 세속을 떠나 산중에 은거하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도법(道法)을 전했습니다.

Ⅰ 수련원리

우리의 인생여정은 호흡의 여정(旅程)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숨을 터트리며 세상에 나왔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며 이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린아이거나 청년이든 노인이든 간에 모두가 횡경막과 흉근 등의 작용으로 肺를 통하여 숨을 쉬는데, 아랫배로 숨을 쉬느냐, 가슴으로 쉬느냐, 아니면 어깨로 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랫배를 불룩이며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감정이 풍부해지고 思考가 발달함에 따라 호흡이 가슴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하며, 청년시절에는 활발한 가슴호흡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다 장년이 되어서는 가슴의 움직임도 거의 없게 되며, 이윽고 노년이 되어서는 어깨를 움직이며 거칠게 숨을 쉬고, 마침내 턱까지 차 올라 호흡수와 맥박수가 같게 되면 하루를 못 넘기고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효과

○ 일반적인 효과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 본래 부여받은 하늘의 성품과 생명력을 회복해 나갈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건강한 몸과 심성과 기질을 선하고 밝게 그리고 당당하게 변화시켜 지인용이 겸비된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덕을 베푸는 참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 일상생활에 피로함이 없이 항상 맑은 정신으로 좋은 능력을 올릴수 있습니다.
- 상쾌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정이 충만해 집니다.
- 비만증이나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의 성인병 치유와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자연 치유력이 강화됩니다.
- 항상 맑은 기혈을 유지시켜 주고, 생식기능이 강화되어 이상적인 건강상태를 지켜 나갈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심호흡에 따른 뇌파와 심파가 안정됩니다.

수련초기의 변화

- 수련을 하고나면 기분이 상쾌하다.
- 몸이 가볍게 느끼고 유연하다. 발걸음도 가볍다.
- 잠이 잘 오고 깊은 잠에 든다.
- 대소변이 순조롭고 소화가 잘 된다.
- 시장기를 느끼고 쉽게 느낀다.
(이 경우에도 식사량이 느는 경우 또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트림 또는 방귀가 자주 나온다.
- 손과 발에 윤기가 나고 따뜻해진다.
- 맥박이 고르고 정상적으로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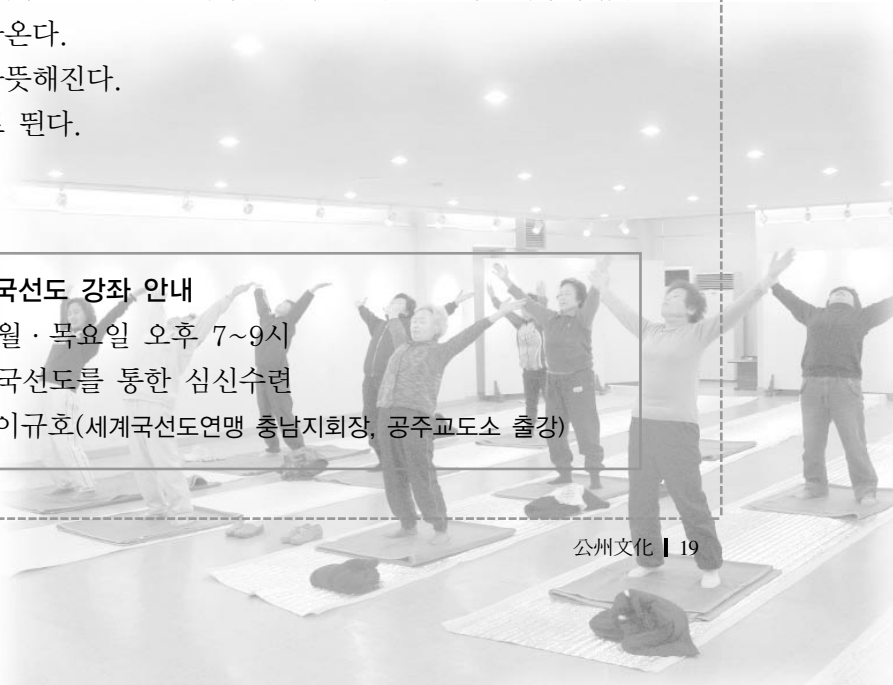


※ 공주문화원 국선도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월·목요일 오후 7~9시

강의내용 : 국선도를 통한 심신수련

강 사 : 이규호(세계국선도연맹 충남지회장, 공주교도소 출강)





국악기 중 사부(絲部)에 속하는 현악기 가야금

가야금은 가얏고라고도 한다. 오동나무 공명반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줄을 세로로 매어 각 줄마다 안족(雁足:기러기발)을 받쳐놓고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낸다. 줄풍류를 비롯하여 가곡반주·가야금산조·가야금병창 등 한국음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청아하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국악기이다.

연혁

《삼국사기》에 가야금은 가야국(伽倻國)의 가실왕(嘉實王)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하나 가실왕 이전인 신라 자비왕(慈悲王:재위 458~479) 때 백결선생(百結先生)이 금(琴)을 쳤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에는 신라 내해왕(奈解王:재위 196~230) 때 물계자(勿稽子)가 금을 쳤다는 기록도 있다. 이 밖에 최근 경주시 황남동(皇南洞) 능원(陵園) 경내 폐고분에서 발굴된 토기 장경호(長頸壺)의 목부분에 새겨진 가야금의 주악도(奏樂圖)를 신라 미추왕릉(味鄒王陵)의 것으로 추정한다면, 가야금의 연대는 3세기 초로 소급된다. 이상과 같은 문헌과 토기로 보아 가야금은 3세기경 가실왕이 중국의 쟁(箏)을 본떠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552년 가야국이 어지러워지자 악사 우륵(于勒)은 가야금을 들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이때 진흥왕은 그를 받아들여 국원(國原:현 忠州)에 자리잡게 하고, 대내마(大奈麻)인 법지(法知)와 계고(階古), 대사(大舍)인 만덕(萬德)을 제자로 삼게 하여 그 업을 전수하게 하였다. 그후 가야금은 노래와 춤의 반주악기로 사용되었으며, 고구려·백제의 것과는 다른 가야금이 사용된 독특한 신라음악을 낳게 하였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가야금은 삼현삼죽(三絃三竹:가야금·거문고·향비파·대금·중금·소금)의 관현합주로 확대되었고, 그 전통은 조선 성종(成宗) 때까지 이어졌다.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줄풍류를 비롯하여 가곡반주 등의 악기인 거문고·대금·피리·해금·장구와는 조선 후기부터 함께 편성되었다. 그리고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연주되던 시나위(또는 心房曲)와 이 시나위에 판소리가락을 도입하여 만든 산조음악도 이때부터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가야금의 종류와 구조

가야금에는 정악을 연주하기 위한 정악가야금(正樂伽倻琴:法琴)과 민속악 및 산조를 연주하기 위한 산조가야금이 있다. 법금은 신라 때부터 있어 온 원형의 것이며 산조가야금은 산조와 민속악의 연주를 위하여 조선 후기에 개량된 가야금이다. 이 두 종류의 가야금은 구조에 있어서는 거의 같으나 크기 · 음역 · 음색 및 연주하는 법은 서로 다르다.

법금은 통오동나무의 속을 파서 앞면은 볼록하게 배가 나오고 뒷면은 편평하게 만든 것으로 길이 약 165cm, 너비는 36cm 가량이다. 산조가야금은 앞판은 오동나무, 뒤판은 밤나무로 만들며 길이 약 150cm, 너비는 21cm 정도로 법금보다 작다. 따라서 줄 사이의 간격도 법금이 보다 넓은 편이다. 줄의 굵기 및 안쪽의 크기도 법금이 약간 크다.

가야금의 연주법 · 조율법

가야금의 연주자세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용두(龍頭)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이두(羊耳頭)는 왼쪽 무릎 약 30° 정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오른손은 용두에 올려놓고 현침(絃枕) 너머의 줄을 뜯거나 통겨서 소리를 내며, 왼손으로는 안쪽에서 양이두 쪽으로 약 10~15cm 떨어져 오른손이 내준 소리를 장식하는 농현(弄絃:줄을 흔들어 줌) · 퇴성(退聲:소리를 흘려 내려 줌) · 전성(轉聲:줄을 굴러 줌)을 한다. 조율은 안쪽의 움직임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 정악가야금에는 평조(平調) · 계면조(界面調) · 우조(羽調)의 3가지 조율법이 있고, 산조가야금에는 산조 한 가지의 조율법이 있다(그림 참조). 산조에는 절대음고가 없으므로 연주자에 따라서 음높이가 다를 수도 있다.



※ 공주문화원 가야금 강좌 안내

강좌시간 : 화 · 금요일 오후 7~9시

강의내용 : 가야금 연주법이론 및 실기지도

강 사 : 류 진 경(대전 · 충남가야금 연주단, 신관초교 강사)



아름다운 음악을 생활로

가 곡



시를 노랫말로 하여 곡을 붙인 성악곡. 19세기말 서양음악이 한국에 들어온 뒤 시에 멜로디를 붙여서 주로 피아노 반주로 부르는 노래를 가곡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명 예술가곡이라고도 한다. 전통가곡과는 달리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의 가곡이라는 말은 서양음악에 있어서의 예술가곡(Lied, Art Song)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된 것이다.

가곡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은 1955년 한규동이 당시까지의 가곡들을 정리하여 《한국가곡집》을 출판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가곡집에는 당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가곡들이 50여곡 실렸으며, 1950년 6·25전란을 전후해서 월북한 작곡가의 작품은 실리지 못하였다. 서양의 리트나 예술적인 노래와는 형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만 가사에 의한 표현의 확대, 한국의 전통적인 민요의 양식 등에 바탕을 둔 멜로디의 사용으로 그 차이가 난다.

1905년 미국의 선교사에게서 음악적인 수련을 받은 김인식이 〈학도가〉라는 노래를 작곡한 것이 서양식 노래의 처음 작곡이고, 독일에서 온 군악대를 지도하던 프란츠 엑켈트(Franz Eckert)에게서 지도를 받아 작곡한 정사인의 〈내고향을 이별하고〉는 1916년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한국 민요의 5음계 멜로디를 구사하였다. 한편 이상준은 초·중등학교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작곡하여 《창가집》이라 했는데, 1915~1920년 사이에 이 노래들이 많이 불리어졌다.

1920년대에는 윤극영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작곡하였는데, 이 노래들은 동요라고 이름지었으며 1924년에 작곡한 〈반달〉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같은해 홍난파가 〈애수〉라는 바이얼린곡을 작곡했는데, 1923년 김형준이 여기에 가사를 붙여 〈봉선화〉라고 하는 노래가 되었다. 이 당시는 이 노래를 가요라고 불렀다. 멜로디의 구성과 작곡 기법으로 보아서 1910년대의 동요적인 간단한 노래보다는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가곡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에 노래의 작곡에 있어서 예술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작곡가는 박태준이다. 그는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선교사로부터 작곡을 수업했고 1923년 마산에서 이은상 작시 〈순례자〉 등을 작곡하여 당시로서는 예술가곡의 체계에 가장 접근

된 작품을 남겼다.

1930년대초 홍난파와 현제명은 가곡의 창작운동을 주도해갔는데 작품집의 출간에 머무르지 않고 발표회를 가져 가곡의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1931년 발행한 홍난파의 《조선창작가요집》과 현제명의 《창작가요1집》에 기인한 것인데, 홍난파의 가요집에는 연가곡 〈나그네의 마음〉이라는 관현악반주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이 연가곡집에는 우리나라 가곡의 정형을 이룬 〈봄처녀〉·〈사공의 노래〉·〈성불사의 밤〉·〈사랑〉·〈장안사〉·〈옛동산에 올라〉 등이 포함되었고, 〈금강에 살으리랏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계인 계면조 선율 등이 바탕이 되었다. 현제명은 이은상 시의 〈고향생각〉·〈그집앞〉, 정인섭 작시의 〈산들바람〉, 자작시의 〈희망의 나라로〉 등 명쾌한 선율로 당시의 상황에서 많이 불리울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어냈다. 뒤를 이어 김동진이 〈가고파〉 등을 발표해서 예술적 분위기를 심화시켰다. 채동선은 정지용 시에 〈고향〉 등을 발표해서 독일풍의 예술가곡에 접근하고 예술성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적 특색이 살아나는 가곡 작곡에 기여하였다. 1935년 이흥렬은 〈바위고개〉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조두남의 〈선구자〉 등은 해외에서 발표되었다. 박태준의 〈사우〉, 김세형의 〈옥저〉, 김성태의 〈동심초〉, 김순애의 〈네잎클로버〉와 1945년 해방직전 김순남·이건우 등이 과감한 민요선율의 도입과 가곡 영역의 표현 확대를 시도해 〈산유화〉·〈철공소〉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해방 이후 부각된 작곡가로는 윤용하·김대현·구두회와 제2세대인 최영섭·장일남을 들 수 있으며 대중적 취향과도 접근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의 한국가곡의 발전은 서구의 로맨티시즘의 영향이 주류를 이루었고, 성악가 오현명의 가곡창법의 체계적 연구 등이 1980년대 이루어졌으며, 그 뒤 한국의 전통적 선율을 서구음악의 체계에 융화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공주문화원 가곡 강좌 안내

강좌시간 : 월요일 오후 7~9시

강의내용 : 발성법 및 가곡 부르기

강 사 : 이 광 형(공주북중 음악교사, 공주교육대 출강)

|향토사료|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 (1)



이 일 주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고,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대학원 졸업
저서 “현대교육의 원리”

공주에 생활하고 있거나 또는 외지에 나가 있어도 공주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번이라도 공주와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공주를 교육도시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공주에 와본 적도 없고, 직접 관련이 없는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공주라고 하면 “역사·문화도시요, 교육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주가 ‘교육도시’라는 명예로운 지역정체성이 확립된 것은 공주가 전성기 백제의 수도(首都)였다는 사실과 깊이 관련된다. 백제가 일찍이 한대(漢代)의 오경박사(五經博士)제도를 도입했다든가,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했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그 당시의 교육수준이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개화기 이후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공주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급별로 대표적인 학교들이 충남·대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어 행정·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일찍부터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하여 학교발전의 토대를 선도하여 왔다.

심지어는 일제강점 후에도 식민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고등학교 수준의 한국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의 맥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왔고, 우수한 교원양성을 담당하는 국

* 이 글은 2002년 공주시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주시지 하권(下卷), pp. 167~255(제5편 제3장 교육)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립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일찍 설립하여 수많은 우수한 교육자를 배출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지역적 명예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공주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오래전부터 상당수의 외지학생들이 소도시에 불과한 공주로 유학을 오고 있고, 지역인구의 30%가 넘는 학생수 점유율이 일찍부터 지역을 생동감 있게 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공주도 예외 없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애석하게도 여러 학교가 폐교되는 현상을 보면서 새삼 학교와 관련한 정담(情談)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근대이전의 학교 형태

가. 백제시대

백제 건국 시 공주는 ‘웅천(熊川)’으로 불리었으며, 북한산성에서 문주왕 원년인 475년에 공주로 천도하여 663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웅진(熊津)’이라는 명칭이 변하지 않았다(공주군, 공주의 얼과 뿌리, P. 14).

한편 백제의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문헌상의 기록이 없어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백제의 교육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문헌을 통하여 보면 백제의 학문적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윤여현, 월당산문집, P. 122~123).

백제의 교육은 이웃이었던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행해졌을 것이라는 견해와 중국의 교육사상이나 교육제도를 본받아 학교를 설립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으나(장찬익·강준모, 한국·서양교육사, P. 18), 오히려 백제의 교육이 고구려보다도 앞섰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고구려가 삼국 중 최초로 세웠다는 형식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태학(太學) 372년(17대 소수림왕 2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때는 백제로 볼 때 13대 근초고왕 시대에 해당된다.

근초고왕은 346년에 즉위하여 374년까지 28년간 집권하였는데, 고구려가 태학을 설립하기 87년 전인 285년에 이미 백제는 왕인 박사(王仁 博士)를 일본에 파견하여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전했다는 일본 서기(書記) 등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백제의 학교설립은 고구려의 태학보다도 앞섰으며 학문적 수준도 고구려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윤여현, 앞의 글, P. 122).

여기에서 왕인 박사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홍윤기, ‘백제 왕인 박사는

일 문화의 은인', 중앙일보, 1997. 11. 18, 42면).

왕인(王仁)박사는 1997년 문화체육부가 11월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는데 백제의 후예인 우리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더 유명하다.

일본인들은 왕인박사를 '일본문화의 은인'으로 한결같이 떠 받들고 있다. 백제에서 건너간 왕씨의 옛 터전인 오사카의 히라가타시에는 '왕인공원'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오경박사 왕인(王仁)은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백제 근초고왕 때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자를 가르치고 뒷날 정무장관이 되었다. 문자가 없었던 문맹의 일본에 처음으로 한자표기의 이두 또는 향찰식으로 문서를 기록하게 했고, 시가(詩歌)를 지어 퍼트렸다. 지금도 일본인이면 누구나 짓고 감상하고 있는 일본의 국시(國詩)인 와카(和歌)를 처음 지은 사람이 왕인박사이다.

이런 연유로 일찍이 다치바나 나오모토는 주작(朱雀) 천황(930~946)앞에서 “해신의 바다/ 수 많은 흰 파도를/ 넘고 넘어서/ 여덟 섬 나라로/ 글을 전하셨노라”는 왕인 예찬시를 읊었다고 하며, 이런 왕인과 그에 대한 시는 일본의 역대 왕실에서 '아버지의 노래(父歌)'로 받들어 왔다고 한다.

한편 백제시대에 학교교육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는 왕인 박사의 명칭과 같이 여러 기록에 산재하는 박사의 명칭으로, 당시 중국의 「오경(五經)박사」, 고구려의 「태학(太學)박사」와 같이 박사란 유학의 경전에 능통한 학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관직을 뜻하는 것이므로 박사의 명칭이 학교교육의 직제와 관계가 깊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는 백제의 중앙관제인 6좌평(佐平) 중 내법좌평(內法佐平)이라는 직제가 있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예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례(儀禮)를 담당하였다. 의례는 그 전제조건으로 교육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당시에 학교의 형태가 없었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인 것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소, 한국교육200년사, 1986, PP. 42~43).

이 중 박사제도는 백제의 한성시대부터 한대(漢代)의 오경박사 제도를 도입하여 모시(毛詩)박사, 의(醫)박사, 역(曆)박사와 같이 각 분야에 전문가를 두었으며,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사 고흥(高興)으로 하여금 백제사를 편찬케 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윤여현, 앞의 글, P.122), 백제시대에 경학(經學)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제도로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 중 신라는 640년(27대 선덕왕 9년)에야 최초로 당나라의 국학(國學)에 유학시키다가 682년(신문왕 2년) 6월에 비로소 국학(國學)을 세워 인재를 양성했

던것에 비해, 백제는 수도를 공주(당시에는 웅진)에 두고 있던 513년(25대 무령왕 13년)에 오경박사 단양미(段楊彌)를 일본에 보낸 바가 있었던 기록을 통해 보면(박은목, ‘충남교육사(Ⅰ)’,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한국교육사학 제5집, P.40) 웅진시대 백제의 교육이 신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무령왕 시대의 교육은 오경박사로써 국내와 국외(일본)의 교육을 담당케 한 것이었으며, 그 인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경(五經)을 모두 가르치는 교학(敎學)에 종사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근초고왕 시대에 고흥한 사람으로 시작된 박사제가 아직기, 왕인, 단양미, 고안무 등으로 증가된 박사제로 발전된 것은 분명히 백제교육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학생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것은 웅진시대가 한성시대에 비해 진일보한 교육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충청남도교육위원회, 충남교육사, PP. 61~62).

이와 같이 수준높은 백제교육의 내용은 주로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기술한 오경박사제의 운영, 삼국유사에 나오는 향덕(向德)의 효행, 삼국사기 의자왕조(條)에 효제(孝弟)를 해동증자(海東曾子)라고 칭송한 사례, 계백의 충절,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백제여인의 정절 등에서 유교적인 맥락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삼국유사에 전하는 수원사(水源寺)에 열킨 미륵신앙, 524년(성왕 2년)에 건립된 대통사를 비롯한 서혈사, 주미사 등 수많은 사지(寺址)들로 미루어 볼 때 웅진시대 백제의 불교가 매우 융성하여 백제인의 생활 속에 불교가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당시의 교육 내용도 유교의 경서와 불교의 경전이 주된 내용으로 채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1년 7월에 발굴된 무령왕릉의 출토 유품의 예술성과 기술성을 통하여 보면 유·불교에서 강조하였던 숭례(崇禮) 교육, 도의교육과 사상교육, 신앙심 함양교육 뿐만 아니라 미술교육, 공예교육, 기술교육도 함께 강조하여 이를 후예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화려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왕인박사의 묘
일본에서 왕인 박사는 일본문화의 은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정안면 윤궁리



윤궁리 단보들

춘향가에서 활원으로

알려진 마을

- 활원마을, 윤궁리의 예와 지금
- 공주특산물 정안밤의 원조 마을
- 학자를 배출한 이름난 서당 문화당
- 소중하게 보관한 옛 문서
- 효자와 열부의 정신이 깃든 곳
- 마을의 유적과 전해오는 이야기
 - 김갑순과 단보들
 - 활원터와 12주막거리
 - 효자와 우물
 - 윤궁리 뒷산의 심정승 묘

춘향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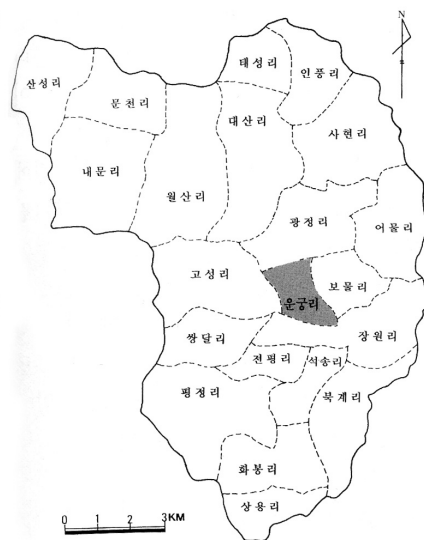
활원으로

알려진 마을



은학동, 위에 저수지 둑이 보인다.

▶ 정안면 운궁리 위치도



활원마을 윤궁리의 예와 지금

조선후기 판소리 춘향가에는 이몽룡이 장원급제하여 전라도 어사를 제수받아 남원으로 내려가는 대목에서, 공주를 지나가는 곳들의 지명이 나오는데 대체로 활원(화란), 광정, 모란, 대평이 거론된다. 활원은 궁원(弓院)의 우리말인데, 여러 사람의 노래로 불려지는 과정에서 '화란'으로 잘못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궁원리(활원리), 곧 현재의 윤궁리는 옛적 교통의 요지로서 공주와 한양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었으며 따라서 길손



원두들, 위로 공주-천안간 고속도로가 지난다.



윗말 전경. 윗산이 밤나무 주산지다.

들이 묵어가는 집(원)이 있었기에 마을 이름에도 ‘원(院)’자가 붙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마을은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으며, 통일 신라기에는 웅주, 고려 때는 공주목, 조선시대에는 공주군 정안면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보물리(甫勿里)·궁원리(弓院里)·운곡리(雲谷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운궁리(雲弓里)가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궁원(弓院)을 주 북쪽 40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후 후대의 문헌에는 이곳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명	연대	궁 원 리			
		위 치	편 호	남자인구	여자인구
여지도서 (輿地圖書)	1765년	북30리	187	244	225
충청도읍지 (忠淸道邑誌)	1800년 추정	북30리	187	204	187
공산지 (公山誌)	1859년	북30리			

현재의 운궁리는 3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바, 공주천안간 고속도로로 갈라져 서북쪽 저수지 밑에 위치한 은학동(은학골)과, 역시 공주천안간 국도로 인해서 나누어진 윗말과 아랫마을 등으로 되어있다. 현재 마을 전체 120호에 320명(남150, 여 170)이 거주하고 있다.

◎ 은학골과 원두들

운궁리의 북동쪽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로서, 마을의 지형이 학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은학골(은학동)이라고 부른다고 하나, 어쩌면 학이 서식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은학동의 좌편(서쪽) 아래 저수지 밑에서 시작하여 윗말 좌편까지 겹쳐 펼쳐진 들녘이 원두들이다. 저수지를 만들기 전에 가물때면 물이 부족하여 논농사가 어려웠으며, 때문에 참외밭이 많았는데 밭 사이에 원두막이 있었기에 원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저수지가 있어 논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편이다.

◎ 윗말과 아랫말

현 운궁리의 원 마을이며, 예전 궁원리(활원)의 본 마을이다. 공주 천안간 국도가 마을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형국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도로 위쪽을 윗말(윗마을), 아래쪽을 아랫말(아랫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윗말을 서북쪽으로 둘러친 뒷산은 매봉재에서 뻗어온 산줄기가 끝나는 부분으로서 밤의 주산지가 되며, 아랫말은 동쪽으로는 넓은 들(단보들)이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 흐르는 냇물(고성천, 앞내라고도 부른다)로서 장원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 앞내(고성천)에 놓여진 궁원교는 제법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마을 어른들에 의하면 일찍이 1930년대 썸에 건설되어 공주-천안간 국도에서 긴요한 역할을 맡은 다리중에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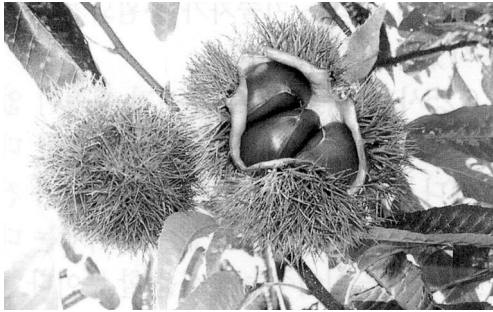
나였다고 하며, 건설당시 전라도 기술자가 동원되었던 큰 공사였다고 한다. 6.25사변시 폭격으로 부서져 원형이 없어졌으며, 지금의 것은 1983년 완공된 다리이다. 현재는 논산-천안간 새 국도가 건설되면서 그나마 역할이 없어져 이제는 다만 마을간을 이어주는 구실을 할 뿐이다.

공주 특산물 정안 밤의 원조 마을

운궁리 뒷산은 매봉재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마을 서북쪽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곳 산지는 원래 한말 청송심씨(靑松沈氏)의 사패지(輝牌之地)였는데, 일제때 유씨(柳氏)가에서 매입하였다 한다. 곧 유근창(柳根昌) 장군(예비역 중장, 전 국방차관)의 집안이다. 유장군의 仲兄이 되는 유근달(柳根

궁원교에서 바라본 아랫말, 앞내(고성천)의 물이 보인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주밤



운궁리 뒷산, 밤나무 산의 원조격이다.

문화당 터, 느티나무 가까이 서당건물이 있었다.



達)어른의 전언에 의하면, 조부(祖父)가 이곳에 이주하였으며, 이제 고인이 되신 만형인 근한(根漢)씨가 이 지역에 처음 밤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또 마을 어른들도 유사한 전언을 하고 있다. 곧 밤나무 식재를 시작한 것은 위의 유씨집안과 더불어 밤나무 접목을 처음으로 시도한 인물이 있는데, 곧 사현리의 김만태(작고)라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밤나무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심었는데 접목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오늘날처럼 밤나무 주산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오늘날 공주지역 농산물의 대표가 되는 공주밤(정안밤)이 이곳 운궁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자를 배출한 이름난 서당, 문화당

운궁리 아랫말 남쪽 끝에 문화당(文會堂)터가 남아 있다. 지금은 옛적 서당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느티나무 만이 말없이 서 있을뿐, 건물의 흔적인 기와 조각이나 주춧돌 마저 모두 없어지고, 그 터전은 밭이 되어 버렸다.

문화당은 뛰어난 학자와 선비를 배출하는 서당으로서, 이 곳 공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났었다고 한다. 본 서당의 유래에 대하여는 도암 이재(陶菴 李緯) 공이 남긴 문화당기(文會堂記)가 있어 그 대략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앞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의 공원에 문화당이 있는데, 옛적 서당의 취지를 이은 것으로서 이 고장 문헌이 시작된 곳이다. 대체로 진사 박정의 공으로부터 비롯되어 고 참봉 김시성 공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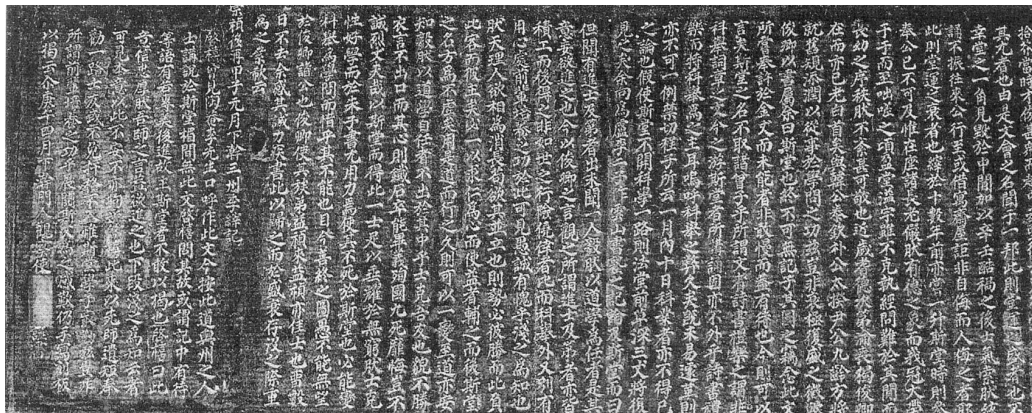
文會堂記
公州之弓院有所謂文會堂者實往昔鄉塾之遺意
陶菴先生集卷二十四記
是邦文獻之始蓋自進士朴公廷儀而故參奉金公始實廟而大之堂之成在於中年而其季胤進士秀五仍繼述之秀五遂巷門人以文行重于一鄉云
自肅宗丁卯迄今殆六十年其間世道屢嬗而斯堂之運亦隨以盛衰焉其爲制也講與製并行每五日一試課程甚嚴誦讀之聲窮晝夜不絕其作者往往下筆數千言以之取科第如拾芥當時才俊甚衆而趙中丞聖復士克崔掌令益秀俊卿其尤者也由是文會之名聞于一邦此則堂運之盛者也不幸堂之一角見毀於中間加以辛壬酷禍之後士氣索然

문화당기(도암집 권24)

르러 확대되었다. 당이 이루어진 것은 공의 중년 때 쯤이었는데, 그 막내아들인 진사 수오가 이어갔다. 수오는 권수암(權尙夏, 1641~1721 송시열의 수제자이며 기호학과 의 지도자)의 문인으로서, 학문과 덕행이 있어 이 지역에서 중망을 얻었다고 한다.

숙종 정묘년(1687)으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거의 60년이 되었으니, 그동안 세도가 거듭 변하였고 이 서당의 운세도 따라서

문화당기 현판(마을주민 최용민(50)씨가 보관중임)



성쇠를 겪게 되었다. 서당의 제도는 강학과 제술을 병행하였는데 5일마다 시험을 치렀으며 과정이 매우 엄격하였다. 책을 읽고 외우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짓는 것이 가끔 수천언에 달하니, 이로써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지푸라기를 줌의 것처럼 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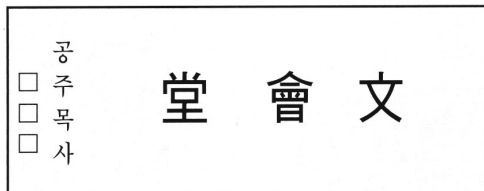
당시에 배출된 인재가 매우 많았는데, 중승 조성복(자. 사주)과 장령 최익수(자. 준경)가 뛰어난 자이다. 이로써 문화당의 명성이 한 지역에서 자자했다. 이때는 문화당의 운세가 성한 때이다.

“불행하게도 당의 한 모서리가 중간에 부서진데다가, 신임사화(경종1~2년, 1721~1722년, 연잉군<뒤의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여 대리청정케 했던 노론 4대신 등이 소론측의 고변으로 즉형을 당하고 실각당한 사건)의 흑독한 화를 입은 뒤로 선비들의 기세가 막히면서 글 읽는 소리도 잦아들게 되었는데, 왕래하는 공무 여행자에게 제실을 숙소로 빌려줌에 이른다면, 어찌 스스로 업신여기면 남들이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 아니랴? 이것은 곧 당의 운세가 쇠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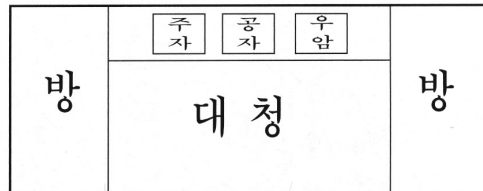


문화당 디딤돌
(문화당터 앞길 석축에 1개 끼어 있다.)

내(이재)가 십수년 전에 역시 이 당에 오른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봉공은 이미 아니 계셨고 오직 여러 장로들은 엄숙하여 덕스러운 모습들로서 높은 관을 쓰고 큰 띠를 매고서 모여들어 잠깐 사이에 이 당을 짝 채우고 넘쳤다. 비록 그 때에 경전을 들고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장유의 차례가 질서를 갖추어 문란함이 없었으니 매우 공경할만 하였다.”



서당 현판(검은면에 흰 글씨, 망실됨)



문화당 구조도

공주의 인물

고균 김 옥 균 선생 (1851~1893)

愛國的 開化運動을 전개하다 실패한 革命家이며 政治家



고균(古均) 김옥균 선생의 초상

조선고종 때의 정치가이었던 선생의 자(字)는 백은(百濶)이요 호(號)는 고균(古均), 고우(古愚)이며 시호(詩號)는 충달(忠達),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1951년(철종 2년)에 공주군 정안면 광정리(公州郡 正安面 廣亭里)에서 태어났다.

당시 명문가인 안동 김씨 집안이었으나 부친 김병태(金炳台)는 낮은 관직에 머물러 있었고 어머니 송씨는 충청도 가문의 출신으로 무척 정숙하고 자애로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생은 7세 때 재종숙 김병기(金病基)에게 입양되어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11세 때인 1861년에 양부(養父) 김병기가 강릉부사가 되어 임지로 가자, 양부를 따라 강릉에 가서 16세까지 율곡사당(栗谷祠堂)이 있는 서당에서 율곡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부하였다.

당시 오경석(吳慶錫), 유흥기(劉鴻基), 박규수(朴珪壽) 등에 의하여 나라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개화사상이 형성되자 선생은 다른 청년들과 함께 1870년 전후부터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갔다.

1872년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874년 홍문관교리(弘文館校吏)에 임명된 선생은 이무렵부터 정치적 결사로서의 개화당의 형성에 전력하여 다수의 동지들을 모으고 그 지도자가 되었다.

1879년 개화승(開化僧) 이동인(李東仁)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근대화 실태를 알아보게 하고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파견을 주선하였으며 1881년 음력 12월에는 선생이 직접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진전 과정을 돌아보고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가들과 접촉하고 돌아 오던중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급거 귀국하였다.

임오군란이 수습된 뒤 선생은 승정원우부승지,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 이조참의, 호조참

공 주의 인물

관, 외아문협관(外衙門協辦)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나라의 자주 근대화와 개화당의 세력 확대에 진력하였다.

선생은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과 자주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경장개혁(大更張改革)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청국의 극심한 방해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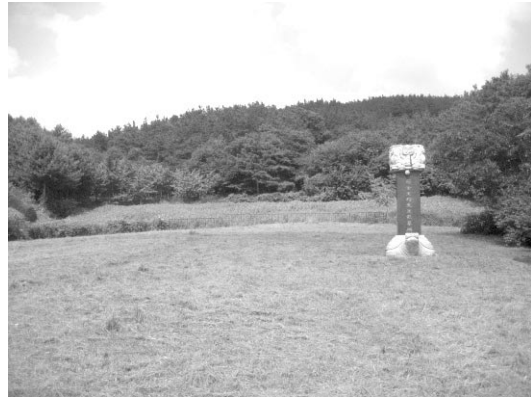
당시 청국은 임오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3천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나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민비 정권을 재수립한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청군을 서울에 주둔시킨채, 조선을 실질적으로 속방화(屬邦化)하기 위한 적극적인 간섭정책을 자행하였다. 청국은 선생 등의 자주 근대화정책이 그들의 속방화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며 조선이 청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으로 보고 개화당의 개화정책을 극도로 탄압하였으며 청국의 도움으로 재 집권한 민비 친정(親政) 사대수구파들도 이에 야합하여 박해하였다.

이에 선생은 정변(政變)의 방법으로 먼저 정권을 장악한 다음, 개화사상과 주장을 실천하여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청국과 프랑스가 안남(현재의 베트남) 문제로 1884년 8월 전쟁에 돌입하였으나 청국이 계속 패하게 되자 선생은 정변을 일으킬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그해 9월 개화당 동지들과 거사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884년 양력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우정국 준공 축하연을 계기로 마침내 갑신정변을 단행하여 그날 밤으로 민비수구파의 거물 대신들을 처단하고 12월 5일 이재원(李載元: 왕의 종형)을 영의정으로 홍영식(洪英植)을 좌의정으로 하여 개화당의 신정부를 수립하였다. 선생은 호조참판을 맡아 재정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정변과 신정부를 모두 지휘하였다.

개화당은 정권을 장악하자 12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며 선생의 주도 하에 혁신정강(革新政綱)을 제정하여 6일 오전 9시경 국왕의 전교(傳敎) 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날 오후 3시 국왕도 이를 추인하여 대개혁정치를 천명하는 조서(調書)를 내려서 국정 전반에 걸친 대 개혁이 이루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청군 1,500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갑신정변을 붕괴시키기 위한 무력개입을 시작하여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개화당의 집권은 “삼일천하(三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선생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후일의 재기(再起)를 위하여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9명의 동지들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85년 말 망명 중인 선생이 일본의 구 자유당계불평 정객 및 낭인들과 결탁하여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다시 선생의 체포와 송환을 요구했던 조선 정부에서는 1886년 5월 통리



김옥균 선생 유해지 충남 공주시 정안면 지방기념물 제13호

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주사(主事) 지운영(池運永)을 일본에 보내 선생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기도는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고 이 일은 조선·일본간에 외교분규로 발전하자 일본 정부는 지운영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선생을 태평양 절해의 고도인 “오가사와라”섬에 강제추방하였다.

이곳에서 약 2년간 유배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선생은 그후 북해도로 옮겨져 억류되었다가 189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내지귀환(內地歸還)의 허가로 동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동경에서의 생활이 궁핍했던 선생은 이일직(李逸稷)의 계략에 빠져 홍종우(洪鍾宇)와 함께 1894년 3월 청국의 상해로 건너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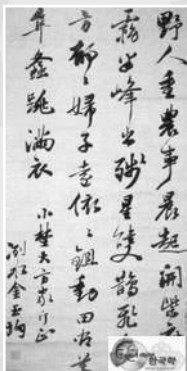
프랑스 유학생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던 홍종우는 민씨 척족정권이 일본에 잠입시킨 자객 이일직에게 포섭되어 1894년 3월 28일에 상해의 미국 조계(組界) 안의 일본 여관 동화양행(東和洋行)에서 선생을 저격하였다. 선생이 암살당하자 청나라는 선생의 시체와 홍종우를 조선정부에 인도하였다. 조선정부는 홍종우를 우대하였으나 선생의 시체를 서울 양화진(楊花津)에서 능지처참하여 전국에 효시하였다.

4개월 뒤에 갑오경장으로 개혁과 정부가 수립되자 이듬해 법무대신 서광범과 총리대신 김홍집(金洪集)의 상소에 의하여 선생의 반역죄는 사면되고 1910년(隆熙 4年)에는 “정일품대신보국숭록대부규장각대제학(正一品大臣輔國崇祿大夫奎章閣大提學)”을 추증하여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治際)하는 대우까지 받았다.

현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선생의 생가지(生家址)가 지방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김옥균 선생 묘

김옥균 선생 필적



공주시 '2007 업무계획보고회'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공주시는 1월 15, 16일 가졌던 '2007 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 하였다. 보고회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은 '힘찬도전! 위대한 공주' 시정구호 아래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무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앞장서 땀 흘릴 때 모든 어려움은 극복되는 것이라며 공주시가 발전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 4기 동안 추진하는 업무를 농사짓는 것에 비유해 지난해가 농사를 짓기 위해 낱알을 고르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경전파종(耕田播種)의 단계로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행정혁신을 추진 ▲ 지역 경제 활성화 ▲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 교통·생활 편의 증진 ▲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환경을 개선」 ▲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점과제 145건, 새로운 시책 49건, 건의사항 3건 등이 보고되었다.

공주 '축산발전' 18억 투입

공주시는 금년도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몫을 다하고자 지역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시에 따르면 올해 축산물 안정기반 구축과 위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 축·수산물 생산과 사육환경 개선 ▲환경을 생각하는 축산기반 조성 ▲축산물 브랜드화와 경영안정 대책 ▲가축방역과 위생 강화로 청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에 팔을 걷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양돈사 사육환경관리(폐사예방)시설 5개소에 1억원, 축사환기시설 233대에 8200만원, 분만 자돈사 냉방시설 개선 3개소에 2100만원을 지원 쾌적한 사육환경을 위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 ➡

공주시 경로복지시책 대폭 확대

공주시는 올해에 12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노인건강 증진사업 등 다양한 경로복지시책을 대폭 전개하기로 하였다.

공주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사업으로 우선 노인 일자리와 장수수당, 경로연금 등에 60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32억6백만원을 들여서 노인요양시설 5개소를 집중 확충하고 특히 경로당 402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개소당 10만원씩을 증액지원하며, 6억9천만원을 들여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건강보조기구도 함께 지원토록 한다.

그 밖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재가노인 돌봄이 바우처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등으로 20억1천만원을 대폭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또,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6개소에 3000만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도모 3개 사업에 1억 8200만원, 원형곤포 싸일레지 세절기 4대에 3600만원, 수질개선장비 27개소에 4100만원을 지원 안전하고 규격화된 축산물과 조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에 2억 6300만원, 축사 악취제거제 15t에 7500만원,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2개소에 3400만원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깨끗한 목장 만들기 2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축산분뇨 재활용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키 위한 수정란이식과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등에 모두 3억 800만원을 투입한다.그리고 한우 명품화 축진을 위한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사업 등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전염병 방제단운영 등 총 18억여원을 투입, 축산발전에 노력하는 해로 만든다고 밝혔다.



연미산과 정안천변이 달라진다

지난해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개최지로 자연미술을 연미산 곳곳에 설치해 더욱 유명해진 연미산은 올해 공주시가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연미산에 계단과 로프를 설치하고, 가로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신웅~월미간 등산로를 개설하고, 경관수를 식재해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으로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둔치공원에서 정안천으로 이어지는 곳에 꽃터널조성(제방), 제방변 꽃식재, 둔치공원 꽃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정안천변 순환산책로 700m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주시에는 산의 꼬리가 제비꼬리를 닮았다 하여 유래한 연미산이 있다. 날렵한 제비가 금강을 박차고 비상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정상에 오르면 곰나루의 전설을 머금고 흐르는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공주가마솥 쌀’ 브랜드 홍보

공주시가 금년도 농업인을 위한 새 기술보급사업을 펼쳐 농가 소득을 올릴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계속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4,000만원을 투입, 단백질 함량 6.5%이하, 완전미율 95% 이상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공주가마솥 쌀’ 브랜드의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처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화를 위해 밀식 장애 과원 전정개선, 점적관비시스템, 성페로몬트랩 등 4개 사업에 4,500만원을 투자하고 1,500만원으로 과일저장 중 생리장애 예측시스템, 에틸렌가스제거, 가습기, 부유세균 제거기 등의 사업을 해 과실 수확 후의 품질보전 인터넷 경영관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시설채소, 화훼 난방비절감, 환경조절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평예인권취, 다검보온커튼, 인터넷환경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절감기술 사업에 5,000만원으로 투입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추 토양전염성 병해 종합방제기술을 보급하고, 냉이, 달래, 머위 등 웰빙시대 맞춤형 민속채소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는 한편 느타리버섯재배사 냉·난방 물커튼, 비닐멀칭, 환기개선 등으로 품질을 고급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현장방문 실시

- 기업하기 좋은 공주 만들기

공주시는 2월26과 27일 양일간 중소기업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코자 나선 이번 방문에는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해 이동섭 공주시의회위원장, 시의회의원, 시 간부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공주시 장기면에 위치한 정안수지의 7개업체를 둘러봤다.



장기 농공단지에서 정안수지의 안병권 사장은 “86년 처음 입주한 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업 1~2개 중 한사람으로 시범 농공단지 조성 후 자랑스런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부끄럽다”며 “공장을 열고 20년 동안 시장님의 공식적인 방문은 처음으로 뜻이 매우 깊다. 현장 근로자들의 힘들어하는 모습 참고해 주시고 시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역사, 교육, 문화의 도시로 자타가 공인하는 척박한 땅, 공주에서 기업의 명맥을 유지해줘 감사하고 고맙다”며, “새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기업할 수 있게 오늘이 자리가 실질적 효과를 얻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형식적이거나 홍보용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현재 공주시 내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알기 위한 방문이니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실질적 방문이 되길 강조했다.



주식회사 에센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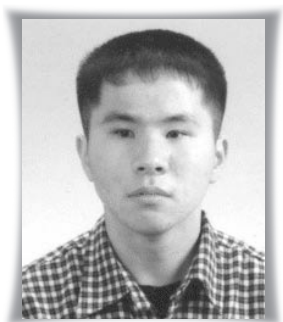
태양광발전소 공주 정안에 건설



태양광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한전선로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근 화석연료에 대비한 대체에너지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주)정안태양광에너지(대표 이찬구)는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21-9번지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발전용량 1,000 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주시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설비는 5KW용량 200기로써 1일 4시간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집열판이 태양을 향해 움직이는 추적식(고정식 대비 효율 150%)으로 설치할 경우 일생산량 6,000KWh/day이며 연간 생산 약 2,190Mwh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1급) 영어교사에 합격



공주대학교(총장 김재현) 특수교육과 시각장애인 졸업생 최유림 씨가 금년 실시된 2007학년도 충청남도 임용고시 영어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최유림(사진, 83년생)씨는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2007학년도 충청남도 중등임용고시 복수전공 영어과목 영어교사로 합격하여 평소 소망하던 교사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중에서 특수교육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몇몇 있었으나 최유림씨 처럼 시각장애인 1급인 사람이 특수교육분야도 아닌 일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은 전국 최초로서 영어교사 1호라 할 수 있다.

공주대학교 5년 연속

전국 사범대 중 임용고사 합격률 전국 1위를 기록



지난 1월 10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2006학년도 임용고사 1차 합격자 발표에서 공주 사범대학(미발추 제외)은 360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2004년도 1차 합격자중 최종합격률 79.3%(357명), 2005년도에는 81.8%(256명)에 이어 1월 26일 발표한 2006학년도 최종합격자는 311명으로 1차 합격자중 최종합격률이 85.0%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진규(국어교육 교수) 사범대학장은 “학생들의 각별한 의지와 학생들을 이끄는 교수와 뒷받침 해주는 선배, 조교, 직원 등이 있기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다른 사범대학보다 다소 환경은 떨어지지만 이러한 이유로 공주 사범대학이 다른 사범대학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다”고 답했다.

우리 타임캡슐 묻고 30년 후 개봉하자



2월 15일 정안초등학교(교장 이종일) 정혜관에서 열린 제82회 졸업식이 있었다. 식전행사로 졸업생들의 추억이 될 만한 것을 3가지 이상 타임캡슐에 넣어 30년 후에 만나 개봉하도록 하고 2월 14일 오후에 학교 뒤 숲 사랑의 오솔길에 묻었다. 또한 졸업식 전에 축하와 감사의 의미로 졸업생이 선생님과 부모님께 ‘높고 크신 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리본 꽃을,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배우고 또 배워서 쓸모있는 사람 되겠어요.’라는 리본 꽃을 달아주었다.

졸업생을 격려하는 이종일 교장 선생님

서울대공원, 두만리마을 ‘홍보대사’ 됐다



공주 의당 두만리 ‘서당골두메마을’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 두만리마을의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했다. 이날 1사1촌 자매결연 체험행사는 지난 2월 2일 서울대공원의 초청으로 두만리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동물원을 구경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은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졌다. 오전에 공주에 도착한 서울대공원 일부 직원들은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관람하고, 일부 직원들은 노인이발, 영정사진 촬영, 가축검진 및 방역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경연 서울대공원진료팀장은 이날 동네 가축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미네랄스톤을 공급하면서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해 하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며 “오늘 참으로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두만리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강형욱 서울대공원홍보팀장은 “자매결연을 신청한 여러 곳을 직접 답사해 이곳 두만리와 결연을 맺게 됐다”며 “소중한 인연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년 1,300만 여명이 이용하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두만리마을 홈페이지를 연결시켜 지역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두만리마을 홍보동영상을 서둘러 제작키로 했다.



이동열 공주지청장 부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에 이동열(李東烈, 40) 검사가 임명되어 3월 8일 취임하였다.

경기 안양 출신인 이 신임지청장은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원을 졸업하고 1990년제 3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제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뒤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6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입문한 이동열 지청장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등을 역임하였다. 이 지청장은 “적법한 검찰권 행사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백방준 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은 미국 일리노주로 연수를 떠났다.

유충호 공주경찰서장 취임

공주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4층 대강당에서 제54대 공주경찰서장 유충호(44)총경의 취임식을 가졌다. 서울 용산서 정보과장, 서울청 홍보계장, 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한 유충호 서장은 취임사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조직능력의 확보를 강조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일하고자하니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익하 전 공주경찰서장은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준비 기획관으로 전보하였다.



신해철 공주소방서장 취임

“다양한 예방활동 및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구조·구급활동을 강화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6일자로 공주소방서 13대 서장으로 취임한 신해철(申海澈, 53세)서장은 충남 당진출신으로 매사 업무처리에 있어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소방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전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은 충청소방학교 학교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정진석 의원, 이완구 지사에게 감사패 받아

정진석 국회의원(공주·연기 국민중심당)은 지난 2월6일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완구 지사는 “2006년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신양-우성간 국도와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등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하여 준데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감사의 뜻을 전하다”고 밝혔다.

파평 윤씨 제22대 대종회장 윤철병 선출

100만명의 파평 윤씨 대종회의 회장으로 공주 이인면 신영리 2구 출신 윤철병 회장이 선출되었다. 윤철병 대종회장은 파평윤씨의 발상을 다시한번 언급하며 “과거 찬란했던 척지진국의 역사와 조선역사 500년간 420명의 과거급제, 퇴계 이황의 취사 및 앞으로 파평 윤씨가 해야할 천리(天理)와 인륜의 변함없음을 100만 종인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선조들의 위대한 위업을 전통을 이어가자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팔 걷고 고무장갑 끼고 공주시의원, 사랑의 연탄배달

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 의원 및 직원들은 2월 12일 월요일의원총회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 벤엘영생원을 방문해 백미 10포대(20kg)를 전달하고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와 구왕리 등 9군데를 방문해 공주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오병주 검사 소년소녀 가장돕기 출판기념회



장학금을 전달하는 오병주 검사

오병주(서울고검 부장검사) 검사의 '우리는 지금 어디있는가'의 출판기념회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오병주 검사는 공주, 연기, 청양 지역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 가장 40명에게 장학금 30만원과 책시계를 전달하고 이은국(공주시 사대부고2)에게 대학교 졸업때까지의 학비를 지원한다는 장학증서를, 장애인 소망의 집에는 50만원의 성금을 각각 전달했다.

국민은행 공주지점

국민은행 공주지점 양희대 지점장은 3월 7일 공주대 총장 접견실에서 공주대 총장(김재현)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공주경찰서 사회복지시설 위문



공주경찰서(서장 유충호 총경)는 2월 13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왕촌어버이집, 민음의집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사랑 실천

공주시 산성동 이호섭(동부화재 공주 지점장, 58세)씨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백미 20kg짜리 10포(시가 40만원)를 정안면사무소에 기탁하였다. 이씨는 정안면 인풍리가 고향으로 평소에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 경로잔치 등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선행을 베풀어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가정마다 쌀독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며

웅진그룹(대표 윤석금)에서는 2007. 2. 14(수)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3,600만원을 이준원 시장에게 전달하였다.

고향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매년 사랑의 성금을 후원하는 웅진그룹의 이번 성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여 공주시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 280가구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백미로 지원된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진 부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 '사랑의 연탄나누기' 실시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지부장 김영만)는 5일 공주 관내 영세농가 및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연탄 1만장을 직접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금번행사는 농협공주시지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고자 실시 됐다.

마음의 양식을 나눠 드립니다



유구초등학교(교장 윤이중)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서를 나눠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도서는 웅진그룹이 ‘아름다운 학교 문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구초등학교에 지난 12월 21일과 금년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기증한 책으로 전집과 단행본을 포함해 만여 권에 이른다.

유구초등학교는 일 년 동안 교육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들과 학급의 학부모 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증받은 도서를 나눠주고 있다. 도서는 어린이 도서와 성인도서로 구분되며, 종류는 만화에서부터 에세이, 잡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배부하는 권수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는 20권씩, 학생들에게는 10권씩으로 대상에 맞게 원하는 도서를 나눠주고 있다.



개국 111주년 기념 이벤트 · 불우이웃돕기



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주우체국(국장 문재해, 노조지부장 허원진)은 개국 111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설명절을 앞두고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소재 무의탁 노인시설인 ‘금강원’을 방문하여 성금을 기탁했다.

이곳 외에도 탄천면 소재 지체장애인 복지시설인 ‘행복의 집’과 사곡면에 거주하는 소년가장을 현지 국장이 방문 했으며, 문재해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 이웃사

하나은행 공주지점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대표 최임걸)는 2월 12일 탄천면 분강리에 위치한 '삼회 복지원(시설장 김다룡)'을 방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 했다. 공주 하나은행(지점장 강범서)에서는 공익신탁수익금을 활용 공주 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2004년은 소망의 집에 리프트 차량 구입비 1천만원, 정명학교에 계단 통로 공사비 5백만원, 2005년에는 금강원에 식당 개보수 비용으로 1천만원, 2006년에는 '도덕 꿈이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공주시의 사회복지시설 5곳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 나눔 운동에 앞장서 오고 있어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역의 대표 은행이다.

홍익산업 공주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위치한 홍익산업(대표 김동엽, 47세)은 1월 31일 공주시를 방문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이준원 시장에게 기탁하였다. 홍익산업은 교통시설물 설치와 신호등 정비 전문 업체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 김 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공주시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된다.



‘과목대신제’로 문화체험을

천년고찰 공주 갑사(甲寺 주지 장곡스님)와 사하촌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과목대신제가 2월 20일 마을 현저서 개최되었다. 갑사 스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갑사와 용천교 과목, 갑사 집단사가 내에서 펼치는 과목대신제는 이 지역을 지켜온 1600여년이 넘는 과목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문화로, 마을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 날에 열린다. 이날 치러지는 과목대신제는 로신제, 장승제, 풍물, 무용, 윷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펼쳐져 참석한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동제로서 상호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자리다. 특히 전야제(19일)행사로 복토, 지신밟기, 금줄매기행사가 실시된다.



본 행사(20일)인 과목대신제는 법문 낭송과 주민의 유교식 제례로 진행되는 독특한 문화양식을 엿볼 수 있어 좋다.



이 과목제는 1960년대까지 행해져 왔으나 그 후 일부 주민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다 2000년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문화축제로 복원돼 사찰과 마을주민이 단합해 마련되고 있다.



이 과목은 임진왜란 당시 영규(靈圭)대사가 승병들을 나무 그늘에 모아 놓고 작전을 세웠던 곳으로도 유명한데 지난 15년전 태풍으로 부러져 현재 밀동만 남아 있다.



공주시 “2007 내 나라여행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펼쳐

“제53회 백제문화제 와 5도2촌사업 관련 ”백제왕 · 왕비복 등 백제의상 체험



공주시는 2007년 2월8부터 2월11(4일간)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된 『2007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 백제의 왕 · 왕비 · 장군 등 무료 의상체험 즉석 사진 찍기를 실시하여 평일 약 2,300명 주말 약 2,600명 총 9,800여명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올해부터 공주 · 부여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제53회 백제문화제”와 공주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주말도시 건설을 위한 5도2촌사업”을 홍보하였다.



신상옥 청년 영화제

전국 대학청소년 대상 영화경연잔치

공주시에서는 지난해 타계한 신상옥 감독을 기리기 위해 시의 역사 문화 자원을 이용한 영화제를 마련 개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공주신상옥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주관하고 공주시, 공주영상대학교,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주최 금강둔치공원에서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대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경연대회를 금년부터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금강둔치공원에 특설무대를 설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 · 단편 등을 상영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펼쳐 한 여름밤의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인데 총 11개 부문에 걸쳐 대상 신상옥상, 강우석상, 강제규상, 김재형상, 김청기상, 네티즌상, 최고연기상, 특별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공주신상옥영화제는 앞으로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작품기회와 체험경험의 기회를 주어 건문을 넓히도록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여름 휴가철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역사문화자원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교육, 산업, 관광,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제112회 정기연주회

‘봄맞이 연인음악회’



공주시충남교향악단(지휘자 김종덕)은 새봄을 맞아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뮤지컬 이 조화를 이루는 ‘2007 봄맞이 연인음악회’를 3월 9일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연인음악회 1부는 현재 대전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 주자로 있는 박민상씨가 협연자로 나서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을 시작으로, 도플러의 ‘헝가리의 전원 환상곡’을 함께 호흡을 맞추며 서곡을 연주하였으며, 2부에는 연인음악회의 색다른 무대를 보여주는 뮤지컬배우 김형주, 김자경, 김여진 트리오가 출연하여, 아름답고 주옥같은 천상의 소리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마고 쉬즈의 ‘명성’, 와이드혼의 지킬 앤 하이드 중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와 ‘난 아직도 믿는다’, 최귀섭의 사랑은 비를 타고 중 ‘언제나 그 나이 땀’과 ‘사랑’을 들려주었다.



2007 Happy 희망축제 개최

공주지역 아동센터



공주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대표 이삼희)가 주관하는 제1회 공주지역아동센터 연합축제가 지난 2월22일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공주지역 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번 축제는 굴렁쇠 지역아동센터, 제일좋은 지역아동센터, 꿈이 있는 도덕지역아동센터, 공주튼튼학교, 공주푸른학교, 탄천지역아동센터, 한문서당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아동들은 레코더연주, 수화, 다도시연, 한문부수노래, 중국어 노래, 악기연주, 영어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참석한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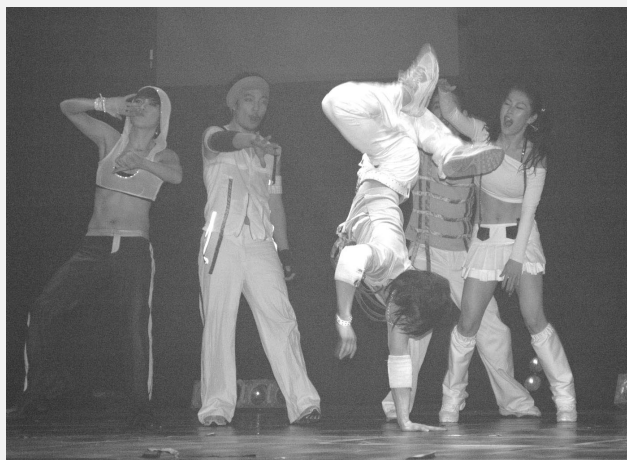
댄스컬 사랑한다면 춤을춰라



2월 23일과 24일 공주문예회관이 청춘남녀 댄서들에 의해 화끈하게 장식되었다.

공연기획전문업체인 '돌모루'는 비보이 공연의 원조격인 '사랑한다면 춤을춰라' 공연을 2월 23일 7시 30분 24일 3시 30분, 7시 30분 일간 공주문예회관에서 선보였다.

공주신문사가 후원하는 이 댄스 컬은 춤과 노래만으로 표현되는 뮤지컬이다. 춤이 언어이고, 대사이다. '사랑하면 춤을춰라'는 힙합, 재즈, 테크노, 팝댄스에서 현대무용까지를 총 망라했다.



출연진은 생명의 탄생, 성장, 사랑을 현란한 춤으로 표현, 관객을 무대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객들 모두가 공연이 시작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출연진과 함께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정월 대보름 한마당축제

야 ! 불이 춤을 추나 보다.

한해의 소원과 희망을 기원하는 행사로 소지올리기, 건강기원 시민걷기대회,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장승과 솟대 만들기 와 묵은해의 액운을 불과 함께 날려버리는 달집태우기, 깡통돌리기, 쥐불놀이 등 다채로운 한마당 축제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음력 정월 열나흘(양력3.3)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금강둔치 공원에서 펼쳐졌으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건강기원 시민걷기대회가 금강둔치트랙을 가족, 연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 행사가 개최되었다.

해가 저문 야간에는 금강백사장에 불 깡통을 이용해 한반도 모형을 수놓은 이벤트 행사와, 마지막으로 깡통 돌리기 체험은 잊혀져가는 농촌민속놀이를 도시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남을 수 있는 축제였다.

한반도 모형의 불꽃이 장관이다.



묵은해의 액운을 날려버리는 달집태우기



금강 둔치를 수놓은 쥐불놀이



반포 온천1리, '숫대마을행사' 열어



공주시 반포면 온천1리는 3월 4일 10시부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숫대마을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5도2촌 시범마을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마을 풍물패의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장기자랑, 전통놀이 체험행사로 연날리기, 윷놀이, 쥐불놀이, 도자기 만들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행사장을 시골장터로 재현해 보리개떡, 삼겹살, 국밥 등의 먹거리와 지역 특산물을 싼 값에 공급해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숫대와 주말농장을 분양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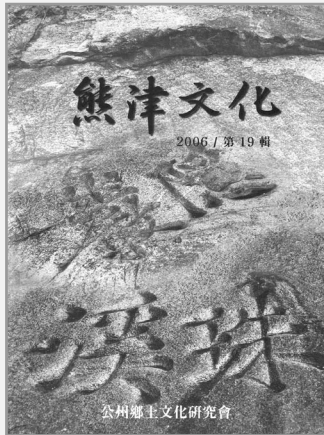
한편, 온천1리는 오는 5월 14일 '분청사기 축제'를 열어 도자기 만들기, 송어잡기 등의 이색체험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온천리 전 주민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유서 깊은 마을 우물과 숫대 앞에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지역발간 책자 소개|



웅진문화 제19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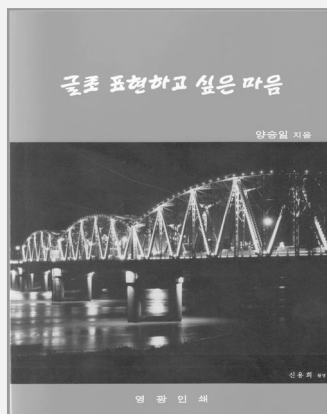
공주의 향토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민간단체인 공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웅진문화 제19집’을 발간했다.

‘웅진문화’ 제19집의 표지는 계룡산 신원사 위에 위치한 보광원 앞 계곡 바위에 새겨져 있는 은암(隱巖)과 주계(珠溪) 석각(石刻)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라고 전해지고 있다.



충남문화총서 발간

충남역사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충남문화총서 제1책이 발간됐다. ‘서해와 금강이 만나 이룬 문화’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은 충남의 역사와 정신사를 엮어 편찬한 최초의 충남역사교과서라 할 만하다.



글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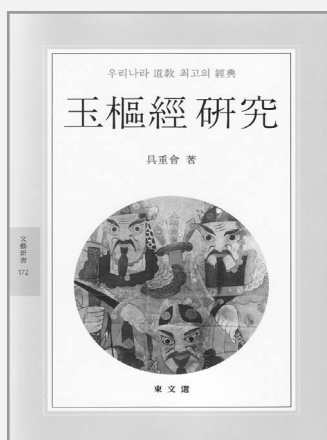
양승일 지음

40여년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며, 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의 조직과 글로서 상호관에 화합의 뜻으로 40여년간의 준비하였던 글을 모아 책을 편찬하였다.

학력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재학
경력 : 공주시 의회 사무국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옥추경(玉樞經) 연구

구 중 회(具重會)



옥추경 조선왕조로부터 임진왜란 사이 관리를 뽑던 '임시과목'의 하나였다. 지금도 옥추경은 민족종교와 민간 신앙의 현장에서 '서슬퍼런' 경전으로 남아있다.

옥추경 연구는 그야말로 '신천지'의 여행이었다. 작자, 저작 시기, 여러 판본과 편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과 여타의 신들,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 머리말中 -

우리지역의 향토문화 대가인 구중회 공주대 교수님(공주문화원 부원장 겸직)의 옥추경의 연구활동을 책자로 발간하였다. 추후 구중회 교수님은 <옥추경 전집>(한국6종, 중국3~4종)을 출간의사를 밝혀 앞으로 옥추경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깊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공주문예회관 공연일정

월별	공연명	장르 공연단체	공연일	장소	주관	연락처	비고
1	2007 신년음악회	음악 주관단체	1.23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충남교향악단)	866-0778 840-2540	확정
2	사랑하면 춤춰라	댄스컬	2.23-2.24	문예회관	돌모루	855-4933	확정
3	새봄맞이 연인음악회	음악 주관단체	3.9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충남교향악단)	866-0778 840-2540	확정
	창작 국악공연	국악 사파나무	3.10	문예회관	국악그룹 사파나무	011-9119-2200	확정
	불바드	무용 LDP무용단	3.13	문예회관	공공시설관리소 (공주문예회관)	840-2467	확정
	시계멈춘 어느날	연극 극단사다리	3.15-3.16	문예회관	공공시설관리소 (공주문예회관)	840-2467	확정
	웃찾사 콘서트	복합 JUN엔터테이	4.8	백제체육관	JUN엔터 테인먼트	010-6724-3233	확정
4	그리스	뮤지컬 오디뮤지컬	4.13-4.14	문예회관	공공시설관리소 (공주문예회관)	840-2467	확정
	오페라의 밤	음악 성곡오페라단	4.28	문예회관	성곡오페라단	011-402-0324	확정
	113회 정기연주회	음악 주관단체	5.11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충남교향악단)	866-0778 840-2540	확정
5	금도끼 은도끼	아동극	5.16	문예회관	소명기획	011-469-0297	미확정
	이주경 독창회	음악 공주대학교	5.31	문예회관	공주대학교	850-8320	미확정
6	마법의성	마술 키드매직	6.8-6.9	문예회관	키드매직	011-9093-8277	확정
	지하철 1호선	뮤지컬 극단학전	6.14-6.15	문예회관	공공시설관리소 (공주문예회관)	840-2467	확정
	114회 정기연주회	음악 주관단체	6.19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충남교향악단)	866-0778 840-2540	확정
7	고마나루 팝콘서트	음악 주관단체	7.28	곰나루무대	공공시설관리소 (공주문예회관)	840-2467	확정
9	115회 정기연주회	음악 주관단체	9.7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충남교향악단)	866-0778 840-2540	확정
10	오페라의 밤	음악 성곡오페라단	10.4-10.6	문예회관	성곡오페라단	011-402-0324	미확정
	희망울림 정기연주	음악 충남관악	10.26	문예회관	충남관악단	866-7071	미확정
	공주 원드양상불	음악 공주음협	10.30	문예회관	공주음악협회	866-7071	미확정
11	116회 정기연주회	음악 주관단체	11.3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충남교향악단)	866-0778 840-2540	확정
	코리아 환타지	무용 국립무용단	11.8	문예회관	공공시설관리소 (공주문예회관)	840-2467	확정
12	117회 정기연주회	음악 주관단체	12.13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충남교향악단)	866-0778 840-2540	확정

공주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2007지역문화학교 개강

- 국선도, 요가, 생활일본어 등 13과목 -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은 2월 13일부터 2007 지역문화학교국선도, 가야금, 풍물(초·중급), 댄스스포츠, 요가(1,2), 가곡, 서예(사군자), 생활일본어, 닥종이종이접기, 켈트 총13과목을 개강하였다.

강좌별 주1회 또는 주2회 1일2시간씩 운영하며 6~7월경 수강이 종강될 예정이다. 전 강좌 전학생 70%이상 수강자는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장의 수여증을 수여 받을 수 있으며 강좌별 자치회를 구성하여 연간 운영 할 수 있으며 년 1회 발표회 및 전시회를 할 계획이다.



공주문화원은 최고의 강사진으로 1993년에 지역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아 10년간 약 2400여명의 수료하여 우수한 지역문화학교로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닥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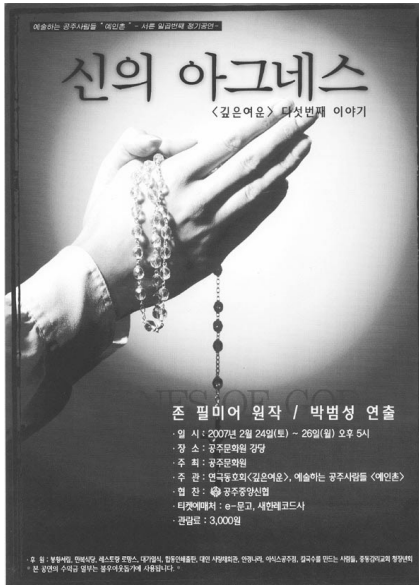
2007 공주문화원 홈페이지 개편

공주문화원 홈페이지가 2007년 개편되어 공주시민 및 네티즌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제공되고자 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전 홈페이지 공주인터넷뉴스의 메뉴뿐만 아니라 향토자료를 웹상에서도 쉽게 볼수 있으며, 도서관 향토자료책자를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현재 구축중이다.

또한 현재 공주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학교 학생들과의 자료공유실로 지역문화학교 홈페이지의 기능또한 개편 업데이트 준비중이다.

- 공주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CULTUREGJ.OR.KR/](http://www.culturegj.or.kr/)
- WWW.DAUM.NET에서 “공주문화원”을 검색해 보세요.
- 한글도메인 “공주문화원”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서른일곱번째 정기공연

신의 아그네스 <깊은여운 다섯 번째이야기>

존필미어 원작 / 박범성 연출

일시 : 2007년 2월 24일(토)
~26일(월) 오후 5시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주최 : 공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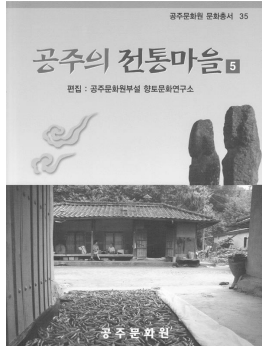
주관 : 연극동호회<깊은여운>,
예술하는 공주사람들<예인촌>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2007년 첫 정기공연이 예인촌 연극동호회 <깊은여운>의 신의 아그네스<Agnes of God> 연극공연으로서 시작됐다.

<깊은 여운>은 공주금성여고 연극반 출신들을 주축으로 2002년 12월에 결성된 연극동호회로서 그동안 매년 정기공연을 통하여 지역에 연극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연극단체이다.

“신의 아그네스”를 계기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깊은여운>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운 겨울을 한 여름처럼 땀 흘린 단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공연하였다.





공주의 전통마을지 5집 발간

공주의 전통마을 5집이 발간되었다.

편집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발간 : 공주문화원

[필진 소개]

정안면 운궁리 : 백원철 공주대학교 교수

사곡면 호계리 : 윤용혁 공주대학교 교수

이인면 복룡리 : 유승광 공주사대부고 교사

반포면 하신리 : 이결재 의당면 부면장 / 의당면 송학리 : 이결재 의당면 부면장

탄천면 남산리 : 이결재 의당면 부면장 / 공주시 웅진동 :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신평면 백룡리 :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 / 계룡면 구왕리 : 이일주 공주대학교 교수

유구읍 세동리 : 구중회 공주대학교 교수 / 우성면 단지리 : 신용희 금강뉴스 대표

장기면 산학리 : 신용희 금강뉴스 대표

정재욱 문화원장은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발굴 조사하고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공주가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관광도시다운 도시로 발전하는데 발간 취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 공주문화원 전통마을5는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전화 : 041-852-9005 이메일 : 8529005@hanmail.net

2007년 공주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공주문화원은 2007년 2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공주문화원 임원 및 운영위원등 50여명 및 공주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공주문화원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재욱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1년간 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원 및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와 금년에도 많은 성원을 당부 하였다.

이어 2006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 2006년 영상물을 시청후 200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의원 심의에 앞서 2006년도 공주문화원 발전 유공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문형권(연춘당한의원 원장), 손경선(손경선내과 원장)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후속프로그램
공주문화원 찾아가는 실버문화학교

“시골 어르신과 도령서당 도시 아이들과의 만남”

장구채는 이렇게...



도리깨질도 해보고



궁금해요...



새끼줄은 이렇게 하는거구나.



옛것을 계승하자는 향토문화지킴이 공주문화원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후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지난 1월 18일 도령서당을 찾아 도시 어린이들과 화합의 만남이 이뤄워졌다.

우리 고장 예능을 지닌 어르신들이 이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에 있는 도령서당을 찾아 훈장님과 함께 도시 어린이들에게 팔치기, 집터다지기, 가래질소리, 논매는소리, 풍물등 전통놀이를 체험 계승하여 우리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세대간의 화합을 다짐하였다.

도시 어린이들은 처음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옛것에 대하여 어색하고 부끄러워 하였으나, ‘권재덕 회장’의 흥이나는 풍물이 연주되자 아이들 모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의 놀이에 흠뻑빠져 도령서당 앞마당은 150여명의 학생들과 실버학교 어르신들의 화합축제가 연출되었다.

25일에는 찾아가는 실버문화학교 어르신들은 명주원을 찾아 명주원 원생들과 화합의 축제장을 가졌다.

한편 실버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국무총리복권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년세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전국 50개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행사를 실시해 노년의 삶을 보람차고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_ 이극래 지회장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지부장에 이극래 지부장 선임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는 지는 3월 11일 공주시 두리에식장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회장에 이극래 공주문협지부장을 선임하였다.

유진건설 최재풍 회장 문화원에 격려금 기탁

공주시 봉황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진건설(주) 최재풍 회장께서 지난 2월 27일 본원 정재욱 원장을 예방하고 항상 향토문예진흥을 위해 진력하는 노고를 치하하고 『公州文化』 발간에 보태써 달라는 뜻을 담아 금일봉을 기탁하였다.

최재풍 회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공주지역협의회 명예회장, 공주·청양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등을 맡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前 화림상사 장석인 사장 문화원에 격려금 기탁

공주시 이인면 명예면장인 前 서울 화림상사 장석인 사장께서 지난 2월 20일 본원을 방문하고 향토문예진흥에 진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公州文化』 발간에 보태써 달라는 격려의 뜻을 담아 금일봉을 기탁하였다. 장사장께서는 애항심이 투철하신분으로 이인면 명예면장을 20여년 맡으면서 고향의 크고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문화원에도 수차례에 걸쳐 격려금을 기탁한 바 있다.



알림

「공주문화」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따라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주문화」는 고향 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
아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명	연령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주문화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gongju.cult21.or.kr